

박사학위 논문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대 영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정렬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ESG-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대 영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정렬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ESG-

위 논문을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대 영

김대영의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상 봉 (인)

심 사 위 원 유 연 우 (인)

심 사 위 원 전 우 소 (인)

심 사 위 원 최 승 욱 (인)

심 사 위 원 김 정 렬 (인)

국 문 초 록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 식 서 비 스 & 컨 설 팅 학 과
매 니 지 먼 트 컨 설 팅 전 공
김 대 영

경영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존의 경영 환경과는 다소 상이한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과 같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사회, 주주 및 협력업체 등과 우호적이고 원활한 관계 형성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변화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크게 일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나 경영성과 영향 분석에 대해 대부분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만 존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제조업 기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든 기업이 혁신을 외치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과 기업가 정신, 특히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존의 기업가 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향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추가한 개념으로 최근 주요그룹 포함 경제계와 SK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곧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이 주주총회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ESG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란 명칭의 빈번한 등장, 그리고 사회 친화적, 사회적 추구, 협력, 커뮤니티, 공동체, 협력업체와의 공생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또한 앞으로 변화하게 될 비즈니스 시장의 판도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된 정부 인증제도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기업을 연구 대상의 범위로 설정하지 않고 일반제조업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로 일반제조업 기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초창기 기계 구입비용, 부지 비용 등의 초기 고정비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이 덜 든 업종의 기업보다 ESG 경영을 쉽사리 도입한다거나, 이를 위해 예산편성에 다소 제약적일 수 있는 직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는 ‘일반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산이 최소 1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외감기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제조업 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ESG 환경, 사회에 더욱 직접적 연관이 높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은 맞닿아 있는 공통된 지점이 다소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일반제조업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들이 인식하고 있는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실질적인 경영성과에 해당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ESG 경영을 매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의사결정권자의 정도 혹은 수준만으로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연구 주제이자 화두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접목,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둘째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실제 학계에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일고 있는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의 향후 중요성의 증대와 현재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경영 전략이라는 데 주목하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구조적 관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환경과의 관계는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두 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고, ESG 경영 사회와의 관계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 모든 요인이 ESG 경영 사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ESG 경영 거버넌스는 혁신성, 진취성, 사회적가치 세 가지 요인에 있어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의 세 차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검증 결과 재무적

성과에는 ‘진취성’ 하나의 요인만이 정(+)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반면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지 요인과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 각과 관계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장기 자원인 비재무적 성과에는 사회적 가치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재무적 성과 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ESG 경영과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이미 수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일반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한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에는 환경과 사회요인이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반면 비재무적 성과에는 환경을 제외한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이 긍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처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의 경우 환경(E)요인 정도가 유의하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데 반해, 본 연구 결과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은 사회(S)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매개변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검증을 하였다.

재무적 성과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우선 환경(E)과 거버넌스(G)는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 간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환경(E)과 거버넌스(G)가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성과 간에 있어서는 환경(E)과 거버넌스(G)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ESG 경영의 환경(E)과 거버넌스(G)를 매개변수로 거쳐 가면 최종 지점인 재무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ESG 경영을 실시하면,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는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혁신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사회(S)와 거버넌스(G)가 둘 다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사회(S)가 그리고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거버넌스(G)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부분매개효과에 있어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가 훨씬 더 ESG 경영의 매개효과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역시 ESG 경영의 사회(S)와 거버넌스(G)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에 완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가치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있어, 가시적인 경영성과보다는 기업의 평판, 이미지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비재무적 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장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위험감수성의 성향과 사회적 가치 추구 성향이 높은 의사결정권자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비재무적 성과로 바로 연결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사회(S)와 거버넌스(G)요인을 매개요인으로 거쳐 가면 비재무적 성과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요인과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의 어떠한 조합에 따라 기업 및 조직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해당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매개효과를 하나의 전략수립 방안의 일환으로서 적용 및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의 핵심 축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 ESG 경영, 기업의 경영성과를 통해 해당 개념 간의 실제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이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점차 사회 친화적 기업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일반제조업 기업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1
1.2 연구 방법 및 구성	7
II.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고찰	10
2.1.1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	10
2.1.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정의	13
2.2 ESG 경영에 관한 고찰	18
2.2.1 지속가능경영과 ESG	18
2.2.2 ESG와 기업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고찰	20
2.2.3 ESG와 경영성과 고찰	22
2.3 기업 경영성과 고찰	23
III. 연구 방법 및 조사설계	25
3.1 연구 모형	25
3.2 연구 가설	28
3.2.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 검증	28
3.2.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30

3.2.3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 관계 검증	32
3.2.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 ESG 경영의 매개효과	34
3.3 측정변수의 구성 및 설문지 작성	37
3.4 표본 수집 과정	41
3.4.1 표본 수집 과정	41
3.4.2 데이터 분석 방법	42
IV. 실증 분석	44
4.1 표본의 특성	44
4.1.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44
4.1.2 표본 정규분포 검증	46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9
4.2.1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EFA)	49
4.2.1.1 사회적 기업가 정신 탐색적 요인분석	50
4.2.1.2 ESG 경영 탐색적 요인분석	53
4.2.1.3 기업 경영성과 탐색적 요인분석	55
4.2.2 구조방정식 측정모델 확인적 요인분석(CFA)	56
4.2.3 측정모델 수정 과정	61
4.2.4 집중타당도 검증	65
4.2.5 판별타당도 검증	67
4.2.6 측정도구 내적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검증	69
4.2.7 구성개념의 기본특성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70

4.3 연구 결과	79
4.3.1 구조모델 분석 및 적합도	79
4.3.2 연구 가설 검증 결과	80
4.3.2.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간의 관계 검증 결과	80
4.3.2.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결과	84
4.3.2.3 ESG 경영과 제조업기업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결과	87
4.3.2.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	90
4.3.2.5 다중집단 분석 결과	100
V. 결 론	103
5.1 연구 결과 요약	103
5.2 결론 및 시사점	107
5.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제언	109
참 고 문 헌	110
부 록	122
ABSTRACT	129

표 목 차

[표 3-1] 가설1, 가설2, 가설3 설정	29
[표 3-2] 가설4, 가설5 설정	30
[표 3-3] 가설6, 가설7 설정	32
[표 3-4] 가설8, 가설9 설정	35
[표 3-5] 설문지 구성 측정문항 요약 및 출처	38
[표 3-6] 설문지 측정문항 구성	40
[표 3-7] 표본 데이터 분석 과정	43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45
[표 4-2] 전체 측정문항의 기본특성 및 정규성 가정 확인	47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1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재실행 결과(수정)	53
[표 4-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ESG 경영)	54
[표 4-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경영성과)	56
[표 4-7] 측정모델의 모형적합도 지수(최초모델)	59
[표 4-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최초모델)	60
[표 4-9] 측정 모델의 최종 모형적합도 지수	63
[표 4-10] 측정모델의 최종 모델 결과	64
[표 4-11] 최초모형과 최종모형 간의 모델 적합도 지수 결과	69
[표 4-12] 크론바하의 알파계수 신뢰도 검정	70
[표 4-13] 최종 구성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72
[표 4-14] 측정변수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74
[표 4-15] 구조모델 모델 적합도 지수 결과	80
[표 4-16] 〈가설1〉, 〈가설2〉, 〈가설3〉 검증 결과	81
[표 4-17] 〈가설4〉, 〈가설5〉 검증 결과	85
[표 4-18] 〈가설6〉, 〈가설7〉 검증 결과	88
[표 4-19] 〈가설8〉 재무적 성과 간 ESG 다중매개 검증 결과	94
[표 4-20] 〈가설9〉 비재무적 성과 간 ESG 다중매개 검증 결과	96

[표 4-2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요약	98
[표 4-22] 다중집단 분석 영향 차이 결과 요약	101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 모형	27
[그림 3-2] 〈가설1〉, 〈가설2〉, 〈가설3〉 경로	29
[그림 3-3] 〈가설4〉, 〈가설5〉 경로	31
[그림 3-4] 〈가설6〉, 〈가설7〉 경로	33
[그림 3-5] 〈가설8〉, 〈가설9〉 경로	36
[그림 4-1] 측정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최초 모델)	57
[그림 4-2] 최종 모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7
[그림 4-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상관관계 분석 결과	75
[그림 4-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 경영성과 관계 분석 결과	77
[그림 4-5] ESG 경영과 제조업기업 경영성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78
[그림 4-6] 가설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경영 환경(E) 결과	82
[그림 4-7] 가설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경영 사회(S) 결과	83
[그림 4-8] 가설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경영 거버넌스(G) 결과	83
[그림 4-9] 가설4 검증 연구 결과	86
[그림 4-10] 가설5 검증 연구 결과	86
[그림 4-11] 가설6, 가설7 연구 결과	89
[그림 4-12] 가설8 다중매개 모형	92
[그림 4-13] 가설8 다중매개 모형 결과 경로	93
[그림 4-14] 가설9 다중매개 모형	95
[그림 4-15] 가설9 다중매개 모형 결과 경로	97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및 경영환경에 따라 과거의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경영을 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자들에게 매우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업에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관련 연구가 발표되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경영자들과 학계에서도 주목해온 이슈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처럼 기존의 기업가 정신에 이어 ‘사회적 가치’라는 차원이 추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 성장만을 가장 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가 정신의 정의가 광범위해지고, 비단 재무적 성과만이 기업의 가치 상승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 보호, 지역사회 봉사 등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스스로 역할을 다한다면,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와 같은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세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더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학술지에서는 약 70여편 가까이 연구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기업 대상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극소수의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일반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의 다양한 관련 제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경영 패러다임의 화두지만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우선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이어 ESG 경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SG 경영 또한 최근 들어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화두 중의 하나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윤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높일 방안을 찾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ESG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소위 재무적 성과와 같은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이에 반하는 경영성과에 사회봉사나 공익적 성격의 기업의 운영행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2021년 1월 SK 하이닉스의 경우 ‘사회적 가치 2030’ 목표를 CEO인 최태원 회장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ESG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배성수, 한국경제신문, 2021).

이를 정리하자면 기존의 기업가 정신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 추구’가 추가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공익을 추구하고 이를 기업에서 직접 실현하고자 하는 ESG 경영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연구는 대다수가 경영의 재무적 성과 측면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만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상호 간의 유의미한 특징과 성격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ESG 경영이 최근 들어 매우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

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이선희, 신효진, 이상윤, 2021), (서용구, 김태미, 2022)의 최근 연구에서는 쿠팡 그룹을 예시로 쿠팡의 ESG 경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그들의 연구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학계에서 현재 ESG 경영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경영 컨설턴트나 경영 전문가들은 향후 대다수의 기업이 ESG 경영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실제 몇몇 대기업은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다.

하나의 우수한 사례로 해외의 예를 들 수 있는데 ESG 경영의 혁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의 회장의 전언에 따르면 팽배해진 국내의 반기업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매출 혹은 영업이익에만 목표로 둔 경영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 또한 경영성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새로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을 ‘공존’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이 기술력을 키웠고, 그 기술이 국가 전체를 살리고 있다는 말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매일경제, 2021).¹⁾

이처럼 해외의 우수기업들을 비롯한 실무에서는 이미 ESG 경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기업 내 도입 또한 많은 기업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중장기적인 시야가 아닌 근시안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당장에 앞서 재무적 성과만을 쫓는 성과 창출 위주의 한국의 기업문화와 기업경영으로 미뤄 볼 때, 최근에 비로소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수행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아직 활발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

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8028/>

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의 탐색적 연구로써의 가치와 의의 그리고 향후 해당 연구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선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의 개념은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이며, 두 개념을 동시에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가설로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의견이 분분한 이슈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과연 경영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과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 역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가 정신’, ‘ESG 경영’,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간의 관계와 연관성을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있어 ‘동시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절된 각 개념 간의 관계와 영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동시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차를 최소화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일반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일반제조업 기업 가운데 자산이 최소 120억 이상에 해당하는 ‘외감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제조업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ESG 경영 도입 여부는 자본력과 관련해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아울러 제조업 기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 폐기물 배출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ESG 경영의 환경, 사회에 더욱 직접적 연관이 높다. 이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또한 ESG 경영과 경

영성과 간에 있어 제조업 기업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보이며, 어떻게 상호 간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무진 위주의 중요성만 부각되고 있을 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ESG 경영의 세 차원인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각각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SG 경영의 매개역할 검증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강해언, 박종철(2022)의 최근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하면,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환경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에 관해 검증하였다.

해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아도 ESG 경영의 매개효과 검증 관련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캐나다에서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젠더의 다양성에 따라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ESG 경영을 매개효과로 살펴보는 연구가 존재하는가 하면(Ouni., et al.,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ESG 경영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ESG의 녹색혁신인 환경이 어떠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기업의 재무성과에 이바지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Chouaibi et al., 2021).

이처럼 해외에서도 ESG 경영을 둘러싼 매우 활발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됨에 따라 국내 학계보다도 훨씬 더 활발히 다양한 형태의 주제와 각 개념의 매개효과, 조절효과 또는 다른 경영상황에 실제 접목시켜 응용하는 등의 다채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역시 마지막 가설을 설정하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분매개 혹은 완전매개의 여부를 가려, ESG 경영이 실제 기업의 성과창출에 있어 중요한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ESG 경영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

가 환경(E)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본 연구에서 동시에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경영환경의 극심한 변화와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앞날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속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검증하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목표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해당 개념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나 ESG 경영의 다중 매개효과를 실시함에 따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구성

앞서 거론한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로 볼 때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무조건적인 기업의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인 상생의 경영을 해야 하고, 기존의 스폰서십 활동, 메세나 활동과 같은 단순한 기부 형태의 한시적인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실제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민간 주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이와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SK 등의 대기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 ESG 경영의 중요성 인식 등을 경영 방침에 적용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2021년 1월 SK 하이닉스의 경우 ‘사회적 가치 2030’ 목표를 CEO인 최태원 회장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ESG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배성수, 한국경제신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 연구 및 해외 학술 연구, 경영전문 리포트 및 간행물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뉴스 및 칼럼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모형화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은 총 9개 이며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가설1], [가설2], [가설3]은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 검증에 해당 된다. 둘째 [가설4], [가설5]는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해당 된다. 셋째 [가설6], [가설7]은 제

조업 기업의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가설8]과 [가설9]는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에 총 4개의 파트로 본 연구는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구성은 연구가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온라인 서베이는 국내 제조기업 가운데 외감기업 법인에 근무하는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430개의 표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이상치 등을 제거한 총 377개의 표본을 통계분석에 활용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0과 AMOS 27.0 그리고 JASP 0.1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변량 이상치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의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측정모델의 적합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준분산 추출과 구성신뢰도 값을 선행연구인 배병렬(2015), 우종필(2015)의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크론바흐알파계수를 검증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 뒤 개념인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각각의 변수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값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단계 구조방정식 구조모델 분석에 앞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가설의 방향에 맞게 변수 간의 방향(정의+ 혹은 부의-)과 관계의 정도를 r -value값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단계 구조방정식 구조모델 분석을 하였으며, 모델적합도를 살펴보고 가설에 맞게 연결한 경로계수의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여 가설 결과를 최종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SG 환경의 3가지 차원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GLM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존

재한다면 부분매개효과인지 완전매개효과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ESG 경영의 매개효과로서의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2장에서는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통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설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 국외 해외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설로서의 설정이 타당한가를 점검하였다. 3장은 연구 방법론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함에 있어 표본 수집 과정 및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과 측정도구의 구성 및 측정도구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개념타당도, 판별타당도, 크론바흐알파 내적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총 9개의 가설을 제안하였으며 연구모형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표본의 측정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고,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최종 검증 이전에 가설의 설정에 맞는 변수 간 관계를 보이는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모델 검증을 통하여 구조모델의 적합도 검증과 경로 계수의 값의 통계적 유의성($P < .05$)을 확인하여 가설 채택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4장에서의 본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였다.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소고와 연구의 시사점과 함의 그리고 의의를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제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고찰

2.1.1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기업이 긍정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경영자들과 학계에서도 주목해온 이슈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기업가 정신에 ‘사회적 가치’라는 차원이 추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 성장만을 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는 개념이었다.

‘사회적 가치’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가 정신의 정의가 광범위해지고 비단 재무적 성과만이 기업의 가치 상승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봉사 등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스스로 역할을 다한다면,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와 같은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리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다양한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경영 패러다임의 화두지만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우선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등의 이론들과 견해들을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CSR의 가장 널리 퍼진 정의 중 하나는 Carroll의 정의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사회가 주어진 시점에서 조직에 대

해 형성되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및 임의적 기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Carroll, 1979).

Carroll의 이론은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CSR에 대한 가장 대표적 이론 가운데 하나였다. Carroll의 이론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선과 재량, 윤리성,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주주 가치의 극대화는 성공적인 기업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1순위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지역, 국가 혹은 국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직원,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재량 또는 자선적 책임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좋은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가 채택하길 요구된다.

이와 같이 Carroll이 제시한 4가지 차원의 항목들이 CSR의 핵심 근간이라 말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최초의 연구 기록은 18세기 경제학자 Cantillon의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되었다(Simon-Moya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Schumpeter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Joseph Alois Schumpeter는 경제 발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발전 이론’이란 저서를 출간하고 이는 경제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이끄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Kenney, 1986).

그는 기업가 정신을 성장 또는 경영활동을 위해 “소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능한 경제 행동이 아니라 기업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진 상황을 시도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Schumpeter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의 창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변화 없는 기존의 경영 체제에 반대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Schumpeter, 2002).

그는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이론을 개발한 최초의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창조적 프로세스로의 변형을 가져 오기 위해 필요한, 차별성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Anderson & Brown, 2006, McDonough & Braungart, 2002).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모든 기업 경영의 문제를 쉽게 해결 지을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많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변화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Hall et al., 2010).

또한 2000년대 초에는 "Sustained entrepreneurship"이라는 지속적 기업가 정신 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도 탄생 되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업가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감수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이라고 설명된다.

한편,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동기를 탐구하였는데,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해 내었다. 이러한 요소는 사회를 향한 도움, 개인적 성취, 비금전적인 초점, 성취 지향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친밀감이 여기에 해당 된다.(Germak과 Robinson, 2014).

Dees et al.(199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 가치 지향이란 기업가가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비즈니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개념이 필수가 되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이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녹색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지향 및 환경적 성과를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 및 보고하는 것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은 비즈니스 세계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상기 문헌들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태동에 대한 배경과 아울러, CSR의 개념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문헌들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지금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 한 여러 기업들의 CSR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경영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CSR, 사회적 가치 등 해당 개념들을 모두 살펴보고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정의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업을 혁신적으로 주도하는 정신으로 정의하고 있다.(송영수, 2010).

본원적 의미로서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고 조직하며, 이익을 위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경영자’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감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의 3가지 핵심 구성요인으로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Zahra, 1993; Lumpkin & Dees, 1996; Weerawardena, 2006; 이용탁, 2009).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기업가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감수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이라고 설명된다.

즉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혁신적 활동을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정신을 의미한다(Schumpeter, 1991).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용어는 1980년 Bill

Drayton에 의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정부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실패한 환경, 의료,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윤동진, 2022).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기업가적 성향이라고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Alvord, Brown & Letts, 2004; Peredo & McLean, 2006).

이익 창출이 목적이 되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익 창출이 수단이 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일반 기업가 정신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Thalhuber, 1998).

한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기업의 리더에게 필요한 정신으로 보기도 하며 (Weerawardena & Mort, 2006),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리더의 개인적인 정신으로 보기보다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정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Light, 2006).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 기업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반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2021년 1월 SK 하이닉스의 경우 “사회적 가치 2030” 목표를 CEO인 최태원 회장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배성수, 한국경제신문, 2021).

SK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 기업가 정신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구성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제시하였다(최조순, 2012).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4가지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이다.

혁신성은 새로운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하여 실현시키는 전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다(Mohr & Spekman, 1994).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은 기업의 결과물인 제품 및 서비스에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최조순, 2012).

진취성은 사회적 변화라는 시장의 요구를 기회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진취성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업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의 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수요 예상 및 경쟁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Li et al., 2007).

그리고 진취성은 상당한 인내와 적응 및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 것을 감수하고, 변화의 관찰과 현재 고객의 욕구를 규명하고, 수요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예측하려는 활동이다(Evans & Wurster, 2000).

한편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환경에서 기업가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전으로 정의하며, 기업가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목적 달성과 열악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시장 영역의 진출이나 제도의 도입으로 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행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ess & Lumpkin, 2005).

그리고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성향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혹은 가치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할 때 발휘된다(Kuratko, 2012).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한다(Helm & Andersson, 2010).

이에 따라 기업가에게 사회적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이익을 추구하고, 기회를 모색하며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하는 기업가적 성향이 필요하며,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지향적인 태도와 역량이 요구된다(Martin & Osberg, 2007).

이러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기존의 기업가 정신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정 수준의 위험을 무릅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밑바탕에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존재하고 있다(최조순, 201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의 인식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어야 하며(Alvord Brown & Letts, 2004), 상품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생산성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Guerrero, Rialp & Urbano, 2008).

따라서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가로서(Lasprogata & Cotten, 2003),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Korosec & Berman, 2006).

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상업적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해 지역사회를 향한 배려와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함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Thompson, 2002).

정리하자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의 본질인 많은 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동기는 항상 유지하고 있되, 무조건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쫓는다고 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더 초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존의 기업가 정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기존의 기업가 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향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추가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최근 주요 그룹 포함한, SK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란, 곧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의 경영혁신 및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많이 차용된 개념이었다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새로운 경영적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검증하여 살펴보고, 또한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각각 미치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2 ESG 경영에 관한 고찰

2.2.1. 지속가능경영과 ESG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는 2016년 세계 100개 국 이상 국가들의 최고경영자 88%가 금융시장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의 광범위한 통합이 성공적 경영의 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사회·기업지배(ESG) 활동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03년에 최초로 3개 기업이 발간했으나, 2018년에는 135개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증가하였다(한국표준협회, 2019).²⁾

이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도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이 발표되고 이에 세계적인 88개 자산운용기관이 참여 서명함에 따라, 2007년 SRI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서명에 참여한 이후 2019년에는 2,787기관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UN PRI, 2019).³⁾

UN PRI의 핵심은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인 요소, 즉 ESG 이슈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2009년 국민연금은행은 국내 연기금 투자기관 최초로 UN PRI에 가입한 이후, 2019년 말 7개 투자기관이 가입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결정에서 기업의 ESG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기금관리와 운용현황을 공시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투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인 ESG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2) <https://www.ksa.or.kr/ksi/4982/subview.do>

3) <https://www.unpri.org/searchresults?qkeyword=¶metrics=WVSECTIONCODE%7C1031>

ESG 활동에 대한 기여 및 사회책임경영(CSR) 활동들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1997년 설립되고 2002년 상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기준과 2010년 발표된 ISO26000 국제표준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외부의 자문기관들의 인증 후에 자발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란 용어는 2006년 UN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가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UN PRI를 통해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투자시장에서 ESG라는 개념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이정기, 이재혁, 2020; 이광상, 2017; 오상희, 이승태, 20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은 2003년부터 실시해오던 지배구조 평가에 더불어 ESG 확산에 발맞춰 환경과 사회책임을 추가하여 2011년부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ISO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ESG 평가모형을 자체 개발하고 전체 상장법인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ESG 부문별 등급과 ESG 통합등급 등 4개의 등급을 발표해 오고 있다.

환경(E)은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을 포함하고, 사회(S)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대응을 포함하고, 지배구조(G)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경우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공시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나영,김명서,장지인, 2013; 임옥빈, 2019)와 같이 KCGS의 ESG등급을 실증분석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 측정치로 적용한다.

KCGS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책임경영, 환경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ISO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 하면서 국내 법제 및 경영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서 독자형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KCGS의 ESG 등급 평가 결과는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KRX) 사회책임투자지수인 KRX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KRX KOSpI 200 ESG 등의 종목구성에도 활용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고찰에 있어 캐롤의 CSR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발전 체계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절의 ESG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CSR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단순히 기업의 CSR의 형태를 넘어서 관련 법규를 재정하고, ‘사회적 책임’이 아닌 ESG 경영이란 경영시스템 전반을 보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2.2 ESG와 기업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고찰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의 실제 관련성에 있어 학계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각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ESG 경영의 실질적 효용성과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SG 경영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의 가장 첫 번째 이론으로 자원기반이론을 예시로 들 수 있다. ESG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ESG 활동을 기업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종의 기업 광고 효과를 갖는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Jones는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 이해관계자들(주요 공급사나 구매자, 일반 대중)과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Russo & Fouts(1997)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그 자체가 일종의 경쟁우위를 발휘하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학자들은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경제적 수익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였고(Ben Bricket al., 2011; Menguc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그린혁신 및 지속적인 명성 창출과 같은 CSR 관련 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이바지함을 주장하였다(최유경, 2019; 조금제, 2018). 이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CSR 활동도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Bacinello et al., 2021). 해당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CSR 활동이 기업의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역량 및 특정 기술로 작용하며(봉강호, 박재민, 김재영, 2018; 이용훈, 심성학, 2018),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 향상 및 경쟁자들로부터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긍정적인 기업성과로까지 연결된다(채주석, 김찬중, 2019; 심용보, 2015). 그러므로 자원기반이론은 ESG 활동의 긍정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둘째, ESG 활동과 기업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 theory)에 주목해 볼 수 있다(Lee et al., 2018). 여유자원이론에서는 더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자원측면에서 보다 더 여유가 있기에 활발히 ESG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앞에서 언급한 자원기반이론에 기초한 시각으로 기업의 여유자원을 ESG 활동의 근거로 보고 있다(최준혁, 양동훈, 배홍기, 2017). 즉, 기업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원은 기업이 다른 희생을 하지 않고도 보다 활발히 ESG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유자원으로 인하여 활발히 ESG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유자원이론에 기초한 ESG 활동은 자원기반이론과 마찬가지로 긍정론에

초점을 둔 입장이라 할 것이다(민재형, 김범석, 2019).

2.2.3. ESG와 경영성과 고찰

ESG 또는 CSR지표는 같은 뜻으로 자주 혼용해서 기존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ESG, CSR 활동과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ESG 지표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40년 이상 실무와 학계에서 중요한 논쟁으로 남아있다(Friede et al., 2015; 김양민, 박지현, 2021; 김다정, 2021).

Friede et al(2015)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2,000건 이상의 ESG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개별분석과 메타분석을 한 결과, 90% 정도의 연구들이 지속가능투자 실행을 측정하는 지표인 ESG와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다수의 결과가 재무성과에 ESG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내고 있어 ESG 투자성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ESG 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지를 살펴본 Xie et al(2019)은 ESG 정보 공시의 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중간 수준으로 공시한 기업이 기업의 효율성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배구조(G) 공시가 가장 영향력이 높고, 사회(S)관련 공시가 다음으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ESG 활동이 시장가치, ROA, 기업 효율성을 포함하는 기업 재무성과와 부정적인 관계가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3 기업 경영성과 고찰

앞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에 관한 개괄적인 정의 및 개념을 기반으로 학계에서 현재 연구 중이며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마지막 절에서는 기업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 과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경영성과를 평가해오는 지표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경영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영성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재무적 성과는 가장 전통적인 경영성과의 개념으로, 수익성과 생산성, 매출액 증가율,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등을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대표 지표라고 설명하였다(Chandler & Hanks, 1994; 김윤경, 2020; 박선주, 유연우, 2020).

최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재무성과 항목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확대와 부채비율 감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최창호, 유연우, 2011; 송거영, 노재확, 유연우, 2014). 반면,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국내 논문들도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로는 고객만족도, 종업원만족도, 생산성, 품질, 내부프로세스 개선 외에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선후, 임옥빈, 2019).

재무적 성과는 판매 성장률과 수익성 증가, 시장 성장률이 성과 판단의 중심이 되며, 그 외 시장점유율, 품질과 마케팅 유효성 등의 비재무적 성과 등이 포함되어 기업성과가 측정, 평가된다고 설명하였다(이건우, 신호균, 2020).

오늘날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는 상호 독립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시에 성과관리가 필요하다(한충근, 유연우, 2016; 신동주, 홍정완, 유연우, 2015).

경영성과 구성요인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3.1 연구 모형

앞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헌 고찰을 그리고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는 ESG 경영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본 연구의 성격에 알맞은 개념이기에 기존의 세 가지 차원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외에 사회적 가치라는 또 다른 변인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 경영’, ‘ESG’ 등의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이론적 배경 및 학술 문헌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의 경우 모든 목표의 결과물이 경영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로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신경 쓰고 이를 올리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차원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경우 물론 기업의 본질인 많은 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동기는 항상 유지하고 있되, 무조건적인 재무적 성과를 쫓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더 초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가 정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조작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존 기업가 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향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추가한 개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자들을 예시로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활동’ 간의 관계 혹은 인과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총 47개의 관련 학술지로부터 69

부의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문헌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 사회적 기업가 정신 임팩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많이 연구가 다뤄지지 않은 주제이며, 특히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증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모든 기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ESG 경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접목하여 수행하고자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이들 요인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구조적 관계(〈가설1〉, 〈가설2〉, 〈가설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와의 구조적 관계(〈가설4〉, 〈가설5〉, ‘ESG 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구조적 관계(〈가설6〉, 〈가설7〉)’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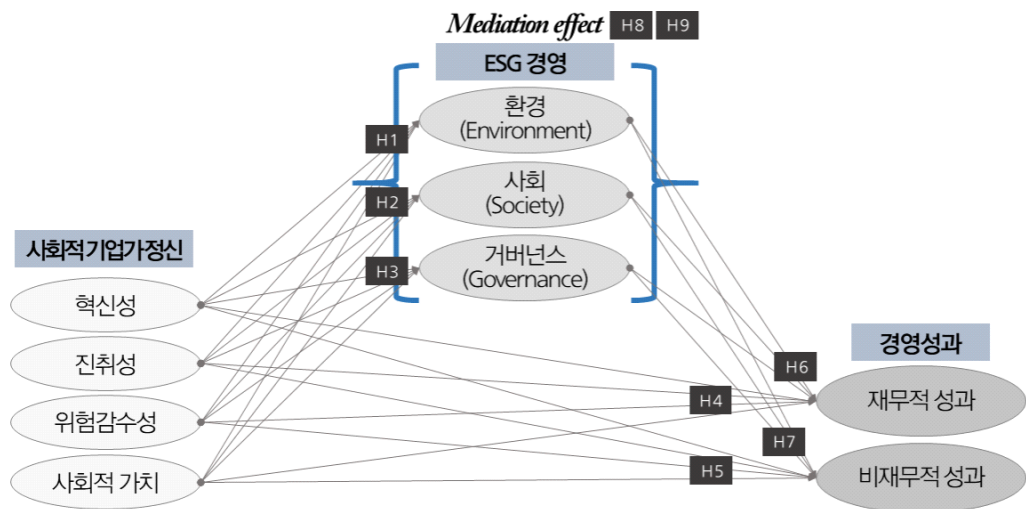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 ESG 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와의 관련 선행연구는 다수 진행된 반면 ESG 경영과의 관계,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을 검증해내고 이를 피력하고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각의 개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매개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과연 ‘ESG 경영’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ESG 경영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가설8〉과 〈가설9〉에 해당 한다. 이렇게 본 연구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 네 가지 차원과,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 경영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밝혀내고 아울러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중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항

후 ESG 도입이 제조업 기업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본 연구에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1부터 가설3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 검증으로 설정하고, 가설4와 가설5를 하나의 주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설6과 가설7을 하나의 주제로 ESG 경영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ESG 경영이 제조업 기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8과 가설9의 매개효과 검증을 하나의 주제로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ESG 경영 도입이 긍정적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은 모두 9가지가 제시되었으나, 크게 ‘4가지 주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그림 3-1]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3.2.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요인이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과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서로 맞닿아 있는 개념이며,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으나, 해당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각각의 개념들이 세부적으로 ESG 경영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영역과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ESG 경영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ESG 경영의 3가지 차원 중 어느 차원이 중요하고 서로 중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 ‘ESG 경영’ →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라는 동시추정의 방향으로 본 연구를 검증하여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되어오지 않은 해당 개념에 대한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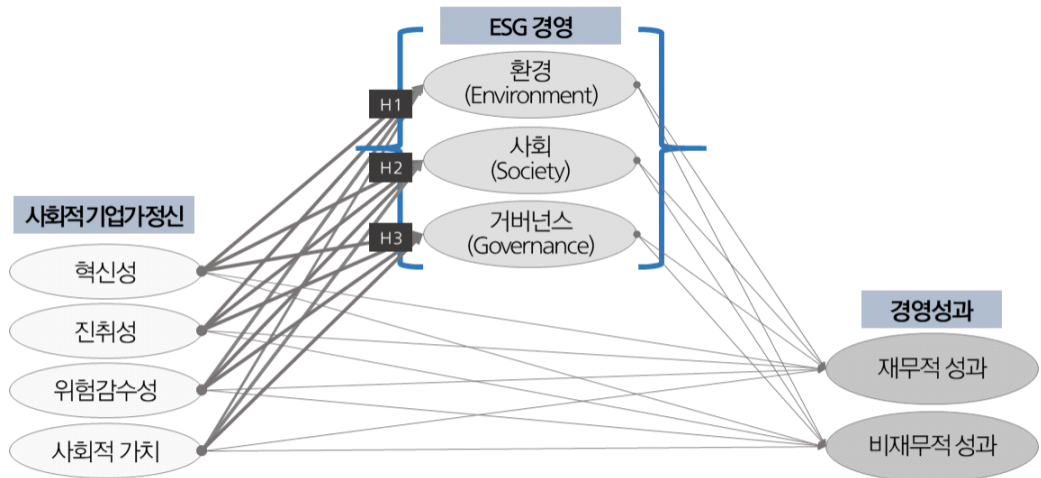
앞서 최근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식음료 제조업의 경우 ESG 활동이 재무성과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인 ROE를 높이는 유의한 요소는 아니지만, 매출액 순이익률과는 정(+)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백상미, 최정미, 2021).

즉 제조업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특히나 주목할 점은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운데 환경(E) 활동만 유일하게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기업의 환경 관련 ESG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것을 해당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1>, <가설2>, <가설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3-1] 가설1, 가설2, 가설3 설정

가설(Hypothesis)	
H1.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환경(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혁신성 → ESG 경영 환경(E)
H1-2	진취성 → ESG 경영 환경(E)
H1-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환경(E)
H1-4	사회적가치 → ESG 경영 환경(E)
H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사회(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혁신성 → ESG 경영 사회(S)
H2-2	진취성 → ESG 경영 사회(S)
H2-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사회(S)
H2-4	사회적가치 → ESG 경영 사회(S)
H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거버넌스(G)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혁신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H3-2	진취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H3-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H3-4	사회적가치 → ESG 경영 거버넌스(G)



[그림 3-2] <가설1>, <가설2>, <가설3> 경로

3.2.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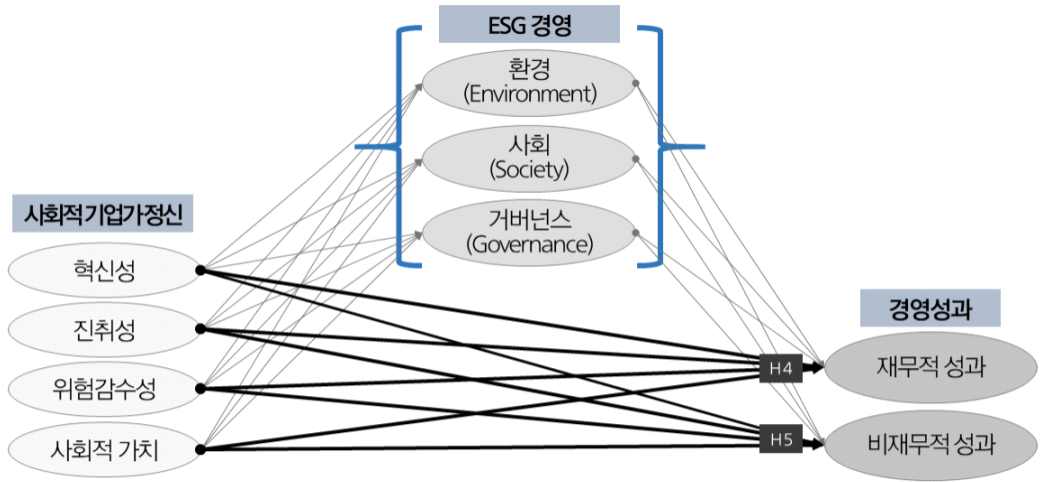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차원이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4>과 <가설5>을 설정하였다. <가설4>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차원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설정하였으며, <가설5>의 경우도 역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차원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하단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사회적 기업가 성향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사회적 기업가 지향성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장성희, 마운주, 2011).

장성희(2012)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창업가와 환경의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하였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른 선행연구들(김형주, 전인오, 2017)을 참고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가설4>과 <가설5>로 설정하였다.

[표 3-2] 가설4, 가설5 설정

가설(Hypothesis)	
H4.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혁신성 → 재무적 성과
H4-2	진취성 → 재무적 성과
H4-3	위험감수성 → 재무적 성과
H4-4	사회적가치 → 재무적 성과
H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H5-2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H5-3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H5-4	사회적가치 → 비재무적 성과



[그림 3-3] <가설4>, <가설5> 경로

3.2.3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ESG 경영이 기업성과 특히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관점이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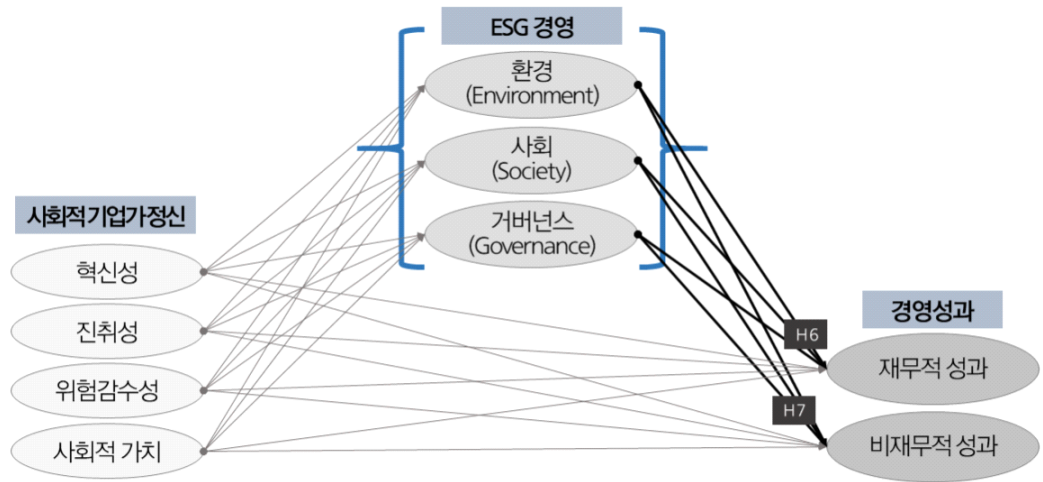
하지만 장승욱, 김용현(2013)의 연구에서는 ESG 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기업의 ESG 도입의 정도에 따라 재무성과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김범석, 민재형(2016)의 선행연구에서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우수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실행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ESG 경영 참여 의도가 높다고 말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ESG 등급이나 도입 정도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을 분석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산규모가 외감기업 이상인 일반제조업 기업이 ESG 경영을 실행함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세차원이 개별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관계조차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6>와 <가설7>를 설정하였다.

<가설6>는 ESG 경영 세차원과 제조업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가설7>는 ESG 경영 세차원과 제조업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표 3-3] 가설6, 가설7 설정

가설(Hypothesis)	
H6.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ESG 경영 환경(E) → 재무적 성과
H6-2	ESG 경영 사회(S) → 재무적 성과
H6-3	ESG 경영 거버넌스(G) → 재무적 성과
H7.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1	ESG 경영 환경(E) → 비재무적 성과
H7-2	ESG 경영 사회(S) → 비재무적 성과
H7-3	ESG 경영 거버넌스(G) → 비재무적 성과



[그림 3-4] <가설6>, <가설7> 경로

3.2.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 ESG 경영의 매개 효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ESG 경영의 세부 차원인 세 변수가 다중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ESG 경영의 매개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가설8>과 <가설9>을 본 연구에서 설정하여, ESG 경영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 지점인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의 역할은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줌에 있어, 가운데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때로는 독립변수 자체만으로는 단독으로 종속변수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다다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매개변수를 거쳐야지만 종속변수란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SG 경영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그 역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ESG의 환경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말하며, ESG 경영 변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충섭, 정미자, 2013). 윤여로, 정진섭, 윤영호(2019)의 연구에서도 CEO의 리더십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살핀 연구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 ESG 경영(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서론에서 밝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맞닿아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마인드 셋한 의사결정권자들이 ESG 경영을 새로운 경영 방침 전략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점차 가속화 된다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ESG 경

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례적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앞다퉈 신년사 및 주주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 2022년 상반기에 LG전자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SK 이사회 구성원의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사회의 역량을 외부에 공개하기까지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역시 ESG 채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제조업 기업이 ESG 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입 없이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만으로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ESG 경영의 매개역할에 힘입어 경영성과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전략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하여, ESG 경영의 매개역할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과거와 같이 이윤만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닌 사회와 균형을 맞춰 노력하는 조직의 의지를 보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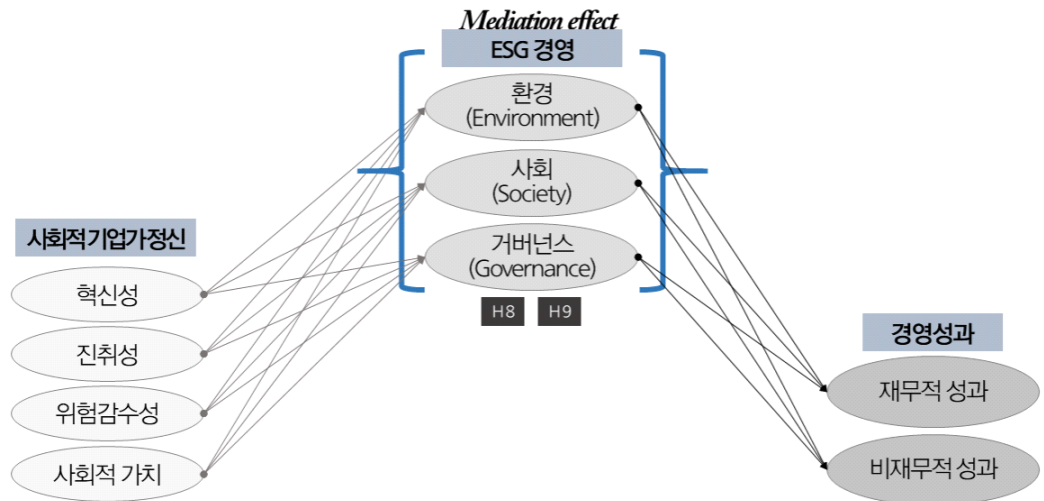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제조업 기업의 결과변수인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ESG 경영의 세 차원의 변수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가설8>, <가설9>를 마지막으로 설정하였다.

[표 3-4] 가설8, 가설9 설정

가설(Hypothesis)	
H8.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8-1	혁신성 → ESG환경 → 재무적성과
H8-2	혁신성 → ESG사회 → 재무적성과
H8-3	혁신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성과
H8-4	진취성 → ESG환경 → 재무적성과
H8-5	진취성 → ESG사회 → 재무적성과

4) EBN 산업경제. (2022). 『주총 시즌 임박...재계 '신사업·ESG' 초점』, 권영석 기자

H8-6	진취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성과
H8-7	위험감수성 → ESG환경 → 재무적성과
H8-8	위험감수성 → ESG사회 → 재무적성과
H8-9	위험감수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성과
H8-10	사회적가치 → ESG환경 → 재무적성과
H8-11	사회적가치 → ESG사회 → 재무적성과
H8-12	사회적가치 → ESG거버넌스 → 재무적성과
H9.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9-1	혁신성 → ESG환경 → 비재무적성과
H9-2	혁신성 → ESG사회 → 비재무적성과
H9-3	혁신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성과
H9-4	진취성 → ESG환경 → 비재무적성과
H9-5	진취성 → ESG사회 → 비재무적성과
H9-6	진취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성과
H9-7	위험감수성 → ESG환경 → 비재무적성과
H9-8	위험감수성 → ESG사회 → 비재무적성과
H9-9	위험감수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성과
H9-10	사회적가치 → ESG환경 → 비재무적성과
H9-11	사회적가치 → ESG사회 → 비재무적성과
H9-12	사회적가치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성과



[그림 3-5] <가설8>, <가설9> 경로

3.3 측정 변수의 구성 및 설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양적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구성에 앞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가장 먼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선행연구(조희진, 장용석, 2016; 배귀희, 2011; 오현석 외, 2015)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 및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의 3가지 차원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앞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선행연구의 설문문항들을 중점적으로 추려 분류하였다.

기존 기업가 정신과 다르게 사회적 가치가 추가된 개념이라는데 있어 앞서 국내보다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온 해외 연구 문헌(Abu-saifan, 2012; Certo & Miller, 2008; Haugh, 2005) 역시 참고하여, 국내 연구의 질문 내용에 적용시켜 본 연구에 맞도록 변형하였다.

다음으로 ESG 경영의 경우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각각의 개념을 3문항씩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김동영, 2020; 이정기, 이재혁, 2020; 민재혁, 김범석, 하승인 2014; 윤조현, 2022; Sassen et al., 2016; Velte, 2017; Dorfleitner et al., 2015; Widyawati, 20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는 통상적으로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차원으로 살펴보려고 하였으며, 전용수, 고세라, 손성진(2013)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각 4문항씩 구성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모두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적 책임, 환경, 윤리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척도인 재무성과와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 역시 함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ESG 경영과 경영성과의 두 축인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와 비재무적성과(Non-financial performance)와의 관계를 측정한 해외 선행연구(Achim & Borlea, 2015; Landi & Sciarelli, 2018; Velte, 2017)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참여자의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 학력, 연령, 근무 년수, 업력, 직급 등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구성한 설문 측정 문항들은 하단의 [표3-5]과 [표3-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3-5] 설문지 구성 측정문항 요약 및 출처

구성 변수	문항(Item)	측정문항	선행 연구
사회적 기업가 정신 (혁신성)	혁신성1	창조적, 독창적 행동의 정도	조희진, 장용석(2016) 배귀희(2011) 오현석 외(2015) Haugh(2005) Certo & Miller(2008) Abu-saifan(2012)
	혁신성2	새로운 제품, 기술, 조직을 만드는 정도	
	혁신성3	위계질서와 관행의 중시 정도	
	혁신성4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 여부	
	혁신성5	업무 프로세스의 잦은 개선 여부	
	혁신성6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갈채 여부	
사회적 기업가 정신 (진취성)	진취성1	모방전략 보다 경쟁업체를 앞서고자 하는 여부	
	진취성2	경쟁보다는 경쟁업체와의 공존 공생을 추구하는지의 여부	
	진취성3	새로운 시장창출과 주도적인 지위확보의 정도	
	진취성4	공격적인 마케팅의 구사 정도	
	진취성5	실패에 대한 피드백의 정도	
	진취성6	진취적인 행동의도의 여부	
사회적 기업가 정신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1	사업의 확실성의 여부	
	위험감수성2	크고 작은 위험의 감수 여부	
	위험감수성3	위험의 감수와 새로운 사업투자의 여부	
	위험감수성4	투자 및 성장전략의 수립과 실천 정도의 여부	
	위험감수성5	위험이 크더라도 큰 수익이 있는 사업의 선호 여부	
	위험감수성6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유망한 사업의 진입 여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가치1	현재 업무의 자부심 정도	

정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2	공익적 가치 수익성 모두의 중 요시 여부	
	사회적가치3	현재 업무에 대한 집중적, 헌신 적 태도의 정도	
	사회적가치4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 지	
ESG 경영 (환경(E))	환경1	친환경제품과 서비스 제공	이정기, 이재혁(2020) 민재형, 김범석, 하승인(2014) 윤조현(2022) 김동영(2020) Sassen et al.,(2016); Velte(2017); Dorffleitner et al.,(2015); Widyawati(20 21)
	환경2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3	적합한 환경전략과 방침 수립	
ESG 경영 (사회(S))	사회1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선 여부	
	사회2	소비자와의 공정거래에 대한 여 부	
	사회3	지역경제 발전과 원활한 소통 여부	
ESG 경영 (거버넌스 (G))	거버넌스1	주주의 권리보호 및 합법적인 소유구조	
	거버넌스2	회사의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의 여부	
	거버넌스3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자 하는지의 여부	
기업 성과 (재무적 성과)	재무적성과1	매출증가율이 업계평균 이상인 지의 여부	전웅수, 고세라, 손성진(2013) Landi & Sciarelli(201 8); Velte(2017)
	재무적성과2	이익증가율이 업계평균 이상인 지의 여부	
	재무적성과3	시장점유율이 업계평균 이상인 지의 여부	
	재무적성과4	수익률(ROI)의 업계평균 이상 여부	
기업 성과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성과1	제품과 서비스의 편익 정도	Landi & Sciarelli(201 8); Velte(2017); Achim & Borlea(2015)
	비재무적성과2	업체의 인지도 정도	
	비재무적성과3	업체의 종업원의 만족도 정도	
	비재무적성과4	현재 업무에 대한 가치의 정도	

주요 측정 문항들은 모두 리커트 5점으로 측정하였고,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측정 문항 역시 리커트 5점으로 측정하였다. 리커트 5점 측정 스케일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3점에 해당되는 3 = 보통수준의 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4점 척도를 이용하거나 7점 척도를 이용하는 등, 연구자들의 다양한 척도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질문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이 다소 많아, 시간 소요를 되도록 최소한으로 줄이고 집중하여, 제대로 설문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리커트 7점이나 4점이 아닌 가장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리커트 5점으로 모든 문항들을 일관되게 측정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투입될 변인들은 모두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문 문항의 세부 문항 수와 스케일 측정 방식은 하단의 [표 3-6]에 정리하여 기술되어 있다.

[표 3-6] 설문지 측정문항 구성

구성 변수		문항수	측정 방법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성	6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진취성	6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위험감수성	6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사회적 가치	4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ESG 경영	환경(Environment)	3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사회(Society)	3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거버넌스(Governance)	3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경영성과	재무적 성과	4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비재무적 성과	4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인구통계학 적 특성 및 근무 특성	성별	1	명목척도를 더미(dummy)로 변환
	학력수준	1	등간척도
	근무년수	1	등간척도
	직급	1	등간척도
	기업 업력	1	등간척도
	고정비(%)	1	연속형 척도, ()%로 기업.
	연령대	1	등간척도

3.4 표본 수집 과정

3.4.1 표본 수집 과정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통상적으로 300개의 표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이학식, 2017; 우종필, 2015)를 따랐다. 연구자가 편의 표집을 진행할 경우 300여 군데 이상의 제조업 기업을 방문하거나, 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에 서베이 URL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수집된 표본의 객관성 문제 또한 존재한다(성태제, 시기자 2020; 이학식, 2017; 우종필, 2015).

본 연구는 학술연구 리서치를 전문으로 전담하는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의뢰하였으며 전국의 150만 명 이상의 자체 패널을 보유해 패널 가운데 본 연구의 성격에 맞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하면 되므로 연구자의 편의 표집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표본 선정 조건은 ‘국내 일반제조업 기업’이어야 하며 그 가운데 자산이 최소 1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외감기업’의 법인으로 했다. 또한 직급에 있어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권자는 대리 이상의 직급이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곳의 제조업 기업에서 여러 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제조업 기업 당 1명씩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 참여 방법은 온라인 참여(데스크톱, 노트북 등 개인용 PC)와 모바일 조사(스마트폰)를 실시하였고, 최대한 설문에 몰입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베이’, ‘모바일 서베이’ 각각의 인터페이스 구성을 이용자 중심의 최적화 된 화면을 제공하였다. 조사 시간은 약 10-15분으로 하였고, 앞서 요구한 사항들을 조사 대상자 선별 조건 문항으로 가장 먼저 질문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패널은 조사를 자동 종료 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총 430개의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별,

연령대, 학력수준 등의 응답자 인구통계학 특성을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 모든 문항을 똑같은 번호로 응답한 경우, 그리고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거한 총 377개의 표본을 통계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4.2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한 데이터로 연구 가설을 과학적, 실증적으로 검증해내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통계분석 패키지 프로그램인 IBM사의 SPSS(Statistics for social science) 26과 구조방정식 실시를 위하여 AMOS(Analysis moments of structure) 24를 활용하였다.

또한 SPSS에서 제시 할 수 없는 연구 결과의 ‘시각화 된 자료’들과 AMOS에서 실시하기 까다로운 다중매개효과 분석(배병렬, 2018; 우종필, 2015)을 진행하고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R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JASP 통계 소프트웨어를 추가 분석에 활용하였다. R이 C+ 언어와 같은 고급 통계 지식을 지니고 있어 프로그램 활용의 문턱이 높다면 JASP는 R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되 GUI(Graphical user interface)형식의 제공으로 매우 편리하게 메타분석, 머신러닝, lavan기반의 구조방정식(SEM), 베이지안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어, IBM사 통계패키지의 단점을 보완한 통계분석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Hyemin-Han, 2020).

[표 3-7]에 대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및 활용한 통계패키지 툴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순서는 수집된 표본의 정제작업 →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 변수 구성을 위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실시 → 변수 구성의 기본 특성(M, SD 등) 및 상관관계 파악 → 구조방정식 실시를 통한 가설 검증 → 다중 매개효과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실시에 있어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의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 분산 추출)와 C.R(Construct reliability: 구성 신뢰도) 값을 산출하고자, 측정 모델의 검증을 마치고 나서 표준화된 계수

(Standardized estimate)값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미리 제작된 배병렬(2018)의 엑셀 수식 시트 파일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AVE와 CR 값이 산출되는 수식 파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3-7] 표본 데이터 분석 과정

구분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방법
응답자 표본의 특성 확인	수집된 데이터의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체 응답자 수(N)확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파이차트 및 히스토그램 분포 보기, plot-box 등의 빈도분석 분포 살펴보기 (SPSS 26.0, JASP)
구성개념(변인) 구성과정 (Construct(V ariable))	데이터의 정규분포(Normality assumption) 및 이상치 존재유무 확인 데이터 스크리닝 실시	기술통계분석의 ‘왜도’, ‘첨도’ 점검 및 Shapiro-Wilk test(Normality) 실시 (JASP), 구조방정식 실시를 위한 마할라노비스의 거리 이상치 제거 실시(AMOS 24.0)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EFA), 크론바하의 알파 계수 산출, 확인적 요인분석(CFA), AVE 및 CR값 산출(AMOS 24.0, SPSS 24.0, JASP, 배병렬(2021)의 Excel Sheet)
	측정항목을 구성개념인 변수로 구성하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각 항목(Item)을 합쳐 평균 값으로 관측변수를 구성 (SPSS 26.0)
변수의 기본특성과 변수 간 관계	변수의 평균(Mean), 표준편차(SD), 표준오차(SE) 등의 기본 특성 파악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이를 시각화함 (SPSS 24.0, JASp)
	측정 변수 간의 방향성의 일치와 ‘관계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pearson’s correlations analysis (JASP)
가설 검증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통한 가설 검증 및 다중매개효과(GLM 매개)를 분석	2단계 방식 구조모델 분석(Two-step SEM analysis) (AMOS 24.0)을 통한 <가설>검증과 다중매개분석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Jamovi를 활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함

IV.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장 먼저 본 연구의 실증적 통계분석 검증을 위해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현재 재직 중인 기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질문을 하였다. 해당 결과는 하단의 [표 4-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성이 전체 응답자 377명 가운데 233명으로 61.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144명으로 3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었다.

둘째,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51.2%로 193명, 50대가 120명으로 31.8% 순으로 높았으며 30대 미만은 64명으로 17.0%에 해당 된다. 따라서 40대>50대>30대 미만 순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본수집을 할 때, 외감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직급을 위주로 표본을 설계하다 보니 전체 표본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셋째,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3%인 23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23.9%로 90명으로 전체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이 약 85% 가까운 응답자가 해당되어 학력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해당 제조업 기업에 근무한 기간의 경우 6-10년 이하가 1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11-15년 이하가 146명으로 38.7%로 나타났다. 반대로 20년 이상 근무자의 빈도가 10명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N=377)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성	233	61.8	61.8	61.8
	여성	144	38.2	38.2	100.0
연령대	30대 미만	64	17.0	17.0	17.0
	40대	193	51.2	51.2	68.2
	50대	120	31.8	31.8	100.0
학력수준	고등학교 미만	2	0.5	0.5	0.5
	고등학교 졸업	16	4.2	4.2	4.8
	2-3년제 대학	38	10.1	10.1	14.9
	4년제 대학교	231	61.3	61.3	76.1
	대학원 이상	90	23.9	23.9	100.0
근무 기간	5년 이하	36	9.5	9.5	9.5
	6년-10년 이하	166	44.0	44.0	53.6
	11년-15년 이하	146	38.7	38.7	92.3
	16년-20년 이하	19	5.0	5.0	97.3
	20년 이상	10	2.7	2.7	100.0
기업 업력	5년 미만	36	9.5	9.5	9.5
	5년-7년	185	49.1	49.1	58.6
	7년-10년 이상	156	41.4	41.4	100.0
직급	대리 이하	89	23.6	23.6	23.6
	과장/차장	45	11.9	11.9	35.5
	부장	22	5.8	5.8	41.4
	임원진	221	58.6	58.6	100.0
합계		377	100.0		

4.1.2 표본의 정규분포 검증

다음으로 수집된 표본(Sample)의 정규성 가정(Normality assumption check)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검증을 실시할 것이므로 다변량 정규성 검증(Multivariate analysis)을 수행하기 이전에, 우선 일변량 정규성 검증을 하였다. 이에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표준오차(Standard Error) 그리고 정규성(Normality assumption)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인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값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기준을 가지고 표본의 정규성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나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느슨하게 범위를 늘려 관대한 기준으로 인해 제거되어야 할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샘플의 수가 50미만 일 경우에는 왜도와 첨도가 1.96(or -1.96)가 적당하며 50-300미만의 샘플의 경우에는 2.00(or -2.00)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적합하다고 말한다(Halter, 2018; 우종필, 2015).

그리고 300개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3.29가 최대 허용치라고 말한다(배병렬, 2021). 또 다른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샘플이 3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최대값(maximum)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왜도와 첨도가 7까지 허용 된다고 말한다(West et al, 1996).

본 연구에 해당 학자들의 기준을 적용시켜 본다면 총 표본의 개수가 N=377이므로 300개 이상의 케이스를 상회한다. 왜도와 첨도의 표준오차(S.E)가 모두 각각 왜도(skewness)의 경우 S.E=.116, 첨도(kurtosis)는 S.E=.232를 보였다. [표 4-2]에 제시된 값을 살펴보면 왜도 값은 ‘진취성6’ 문항 skewness=-1.619로 나타났으며 첨도 값의 경우도 역시 ‘진취성6’ 문항이 kurtosis=3.6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또한 7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표본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을 가정하고, 샘플링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정규성 검증 결과는 추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기 이전

AMOS 프로그램을 통한 다변량 검증 방식인 마할라노비스의 거리 (Mahalanobis Distance)를 살펴보고 표본에 문제가 없다면 연구자는 해당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통계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4-2] 전체 측정문항의 기본특성 및 정규성 가정 확인

(N=377)

Items	M	SD	S.E.	variance	skewness	kurtosis
혁신성1	3.871	1.174	.060	1.377	-1.011	.157
혁신성2	4.132	1.110	.057	1.231	-1.267	.804
혁신성3	3.697	1.262	.065	1.593	-.715	-.552
혁신성4	3.916	1.240	.064	1.538	-1.094	.229
혁신성5	3.596	1.212	.062	1.469	-.639	-.516
혁신성6	3.715	1.199	.062	1.437	-.863	-.112
진취성1	4.082	1.024	.053	1.049	-1.115	.735
진취성2	3.813	1.182	.061	1.396	-.822	-.228
진취성3	3.997	1.014	.052	1.029	-.988	.603
진취성4	3.749	1.033	.053	1.067	-.671	.083
진취성5	3.834	1.014	.052	1.028	-.780	.149
진취성6	4.338	.831	.043	.690	-1.619	3.639
위험감수성1	2.773	1.365	.070	1.864	-.010	-1.303
위험감수성2	2.459	1.394	.072	1.942	.456	-1.100
위험감수성3	3.153	1.116	.057	1.246	-.282	-.449
위험감수성4	2.792	1.294	.066	1.673	.120	-.996
위험감수성5	2.792	1.285	.066	1.652	.086	-1.068
위험감수성6	2.873	1.283	.066	1.645	-.087	-1.005
사회적가치1	3.525	1.084	.056	1.176	-.522	-.392
사회적가치2	3.525	1.006	.052	1.012	-.398	-.154
사회적가치3	3.699	.923	.047	.851	-.486	-.019
사회적가치4	2.960	1.178	.061	1.387	-.040	-.795
환경1	3.615	1.026	.053	1.052	-.534	-.117
환경2	3.773	.938	.048	.880	-.752	.563
환경3	3.953	.896	.046	.802	-.884	.848
사회1	3.707	1.075	.055	1.155	-.720	.080
사회2	3.435	1.138	.058	1.294	-.295	-.714
사회3	3.657	1.028	.053	1.057	-.700	.079
거버넌스1	3.982	1.111	.057	1.235	-.940	.060
거버넌스2	3.860	1.195	.061	1.427	-1.000	.180

거버넌스3	3.781	1.203	.062	1.447	-.801	-.286
재무적성과1	3.968	.994	.051	.988	-.959	.748
재무적성과2	3.931	1.034	.053	1.069	-.944	.386
재무적성과3	4.092	1.005	.052	1.010	-1.161	1.090
재무적성과4	3.955	.995	.051	.990	-.963	.613
비재무성과1	3.784	.952	.049	.905	-.722	.361
비재무성과2	3.681	1.014	.052	1.027	-.630	-.023
비재무성과3	3.916	1.030	.053	1.062	-.983	.521
비재무성과4	3.588	1.122	.058	1.259	-.674	-.160
비재무적성과1	3.712	1.045	.050	1.092	-.555	-.324
비재무적성과2	3.971	1.012	.048	1.024	-.813	.136
비재무적성과3	3.705	1.130	.054	1.277	-.798	.013
비재무적성과4	3.828	1.107	.053	1.225	-.888	.107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2.1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EFA)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및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analysis)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양적연구에서 연구자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성된 측정 문항의 타당도 확인 및 검증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이에 크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분류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의 구조를 가정하지 않는 요인분석이다. 모형으로 본다면 공통요인분석인 경우도 있고 주성분 분석인 경우도 있다. 분석되는 상관관계수행렬(공통요인분석 시에는 축소된 상관행렬임)에서 몇 개의 요인이 산출될 수 있는지 탐색적으로 검토한 후 그 개수만큼의 요인구조를 산출해 낸다(최창호, 유연우, 2017).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강한 가정 없이, 표본자료 내에 들어 있는 요인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측정문항을 새로 개발해내거나 척도개발 등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을 때 각각의 개별 측정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구성개념을 만들어 내며 이를 변수로 정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의 충족기준을 충분히 만족한 선행연구들에서 쓰인 측정문항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측정문항을 그대로 가져다 본 연구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연구자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측정 문항들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구성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 검증 변수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을 그리고 제조업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변수의 각각의 측정 문항 항목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의 해당 결과가 기업가 정신은 4가지 차원으로 그리고 ESG 경영은 3가지 차원으로 또한 재무적 성과는 2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각각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요인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전(rotation)방법인 직교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설정하였다. 요인분류의 기준은 고유값인 아이겐 값 1.000이상을 요인으로 구성 되도록 설정하였다.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요인적재치는 .400-.500이면 적합하다고 말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700이상의 요인적재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우종필, 2015).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인 .400-.500이상의 요인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추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할 때,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관측변수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한 번 더 실시하고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집중타당도, 구성신뢰도 값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탐색적 성격의 설문 요인은 아니지만, 각 차원으로 잘 분류된 각각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2.1.1 사회적 기업가 정신 탐색적 요인분석(EFA)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값인 Kaiser-Mayer-Olkin 값은 기준인 .700이상인 .904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6623.308$, d.f=231로 p -value가 $p < .001$ 수준으로 구형성 검정 또한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분1은 ‘혁신성’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치는 .520~.84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취성6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진취성6이 혁신성을 구성하는 설문문항들과의 상관성이 높은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 했다.

[표 4-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3	4
혁신성	혁신성6	.843	.237	.226	.092
	혁신성4	.827	.165	.243	.075
	혁신성3	.815	.315	.220	.146
	혁신성5	.791	.258	.322	.098
	혁신성2	.718	.129	.198	.202
	혁신성1	.710	.186	.331	.236
	진취성6	.520	-.056	.432	.203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4	.114	.826	.161	.062
	위험감수성2	.121	.826	.089	-.007
	위험감수성5	.179	.805	.183	.153
	위험감수성1	.163	.794	-.011	.032
	위험감수성6	.220	.772	.165	.162
	위험감수성3	.153	.708	.235	.120
진취성	진취성3	.263	.188	.850	.177
	진취성2	.335	.158	.820	.038
	진취성1	.419	.083	.753	.103
	진취성5	.354	.280	.750	.153
	진취성4	.157	.179	.721	.029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1	.070	-.024	.062	.830
	사회적가치3	.178	.038	.213	.788
	사회적가치4	.145	.227	-.109	.728
	사회적가치2	.217	.196	.270	.713
고윳값(Eigen-value)		4.746	4.312	3.925	2.668
분산설명(%)		21.572	19.601	17.839	12.127
누적분산(%)		21.572	41.173	59.012	71.139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x^2)			6623.308	
	자유도(d.f)			231	
	유의확률(P-value)			0.000	

‘진취성6’문항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 한 결과 KMO값은

.903으로 기준인 .700이상을 상회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이 $p < .001$ 의 기준을 충족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은 총 4가지 성분으로 분류 되었으며 혁신성의 아이겐 값이 4.4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요인적재치는 .710~.843으로 .700이상을 모두 상회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위험감수성의 아이겐 값은 4.240의 값을 보였으며, 요인적재치 역시 .708~.826으로 .700의 기준을 모두 상회하여 높은 수준의 값을 보였다. 진취성의 아이겐 값은 3.820으로 기준인 1.000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요인적재치 또한 .721~.850으로 모두 .700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는 아이겐 값 2.658을 보였으며 요인적재치는 .713~.830로 .700이상을 충족했다.

모든 요인들이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바와 마찬가지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사회적 가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에서 쓰인 척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설명력은 72.38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재 실시 결과(수정)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3	4
혁신성	혁신성6	.845	.223	.237	.100
	혁신성4	.826	.152	.253	.082
	혁신성3	.817	.301	.231	.153
	혁신성5	.798	.239	.336	.106
	혁신성2	.716	.119	.205	.208
	혁신성1	.712	.170	.342	.244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4	.120	.827	.164	.062
	위험감수성2	.134	.821	.095	-.006
	위험감수성5	.184	.805	.186	.153
	위험감수성1	.170	.795	-.008	.032
	위험감수성6	.229	.766	.172	.164
	위험감수성3	.154	.710	.236	.120
진취성	진취성3	.254	.181	.853	.182
	진취성2	.333	.145	.827	.045
	진취성1	.411	.074	.758	.109
	진취성5	.346	.274	.753	.158
	진취성4	.161	.163	.730	.035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1	.064	-.026	.060	.831
	사회적 가치3	.164	.041	.207	.789
	사회적 가치4	.148	.223	-.106	.729
	사회적 가치2	.219	.185	.275	.718
고윳값(Eigen-value)		4.483	4.240	3.820	2.658
분산설명(%)		21.350	20.192	18.190	12.657
누적분산(%)		21.350	41.542	59.732	72.389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χ^2)	6380.503
	자유도(d.f)	210
	유의확률(P-value)	0.000

4.2.1.2 ESG 경영 탐색적 요인분석(EFA)

ESG경영의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값인 Kaiser-Mayer-Olkin 값은 기준인 .700이상(김동수, 유연우, 2020; 최창호, 유연우, 2017)인 .848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2040.400$, d.f=36로 p-value가 $p < .001$ 수

준으로 구형성 검정 또한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분은 총 3가지 성분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번째 성분은 ESG 경영 거버넌스 성분으로 아이겐 값은 2.430으로 1.00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세부 문항별 요인적재치는 .694~.886으로 거버넌스1 문항이 .700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으나, .700의 기준 적용은 엄격한 기준이므로 .400-.500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는 해당 문항의 요인적재치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분은 ESG 경영 환경 성분으로 아이겐 값은 2.318로 나타났고, 요인적재치는 .736~.890으로 모두 .700이상의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사회 성분의 경우 아이겐 값은 2.276으로 1.00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요인은 .786~.807로 .70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ESG 환경 측정 도구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과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 설명력은 78.043%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표 4-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ESG 경영)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3
ESG경영 (거버넌스)	거버넌스2	.886	.185	.258
	거버넌스3	.864	.242	.222
	거버넌스1	.694	.181	.366
ESG경영 (환경)	환경2	.186	.890	.143
	환경1	.100	.859	.217
	환경3	.331	.736	.221
ESG경영 (사회)	사회3	.153	.204	.807
	사회1	.353	.218	.800
	사회2	.340	.181	.786
고윳값(Eigen-value)		2.430	2.318	2.276
분산설명(%)		27.000	25.756	25.287
누적분산(%)		27.000	52.756	78.04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χ^2)		2040.400	
	자유도(d.f)		36	
	유의확률(P-value)		0.000	

4.2.1.3 기업 경영성과 탐색적 요인분석(EFA)

기업 경영성과의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값인 Kaiser-Mayer-Olkin 값은 기준인 .700이상인(이학식, 2014; 배병렬, 2021; 배병렬, 2015; 최창호, 유연우, 2016).893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1637.916$, d.f=28로 유의확률 수준이 $p < .001$ 수준으로 구형성 검정 또한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분은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총 2가지 성분으로 분류되었으며, 첫째 성분은 비재무적 성과로 총 네 문항이 .711~.833의 요인적재치 값을 보이고 있어 기준인 .700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아이겐 값 역시 2.873으로 1.000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적 성과 네 문항이 .654~.858의 요인적재치 값을 보였으며, 재무적 성과4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654로 .700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700의 충족 기준이 엄격한 기준임을 감안 할 때 .400-.500의 기준에는 상회하는 수준의 요인적재치를 보여 해당 문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경영성과는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쓰인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2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0.767%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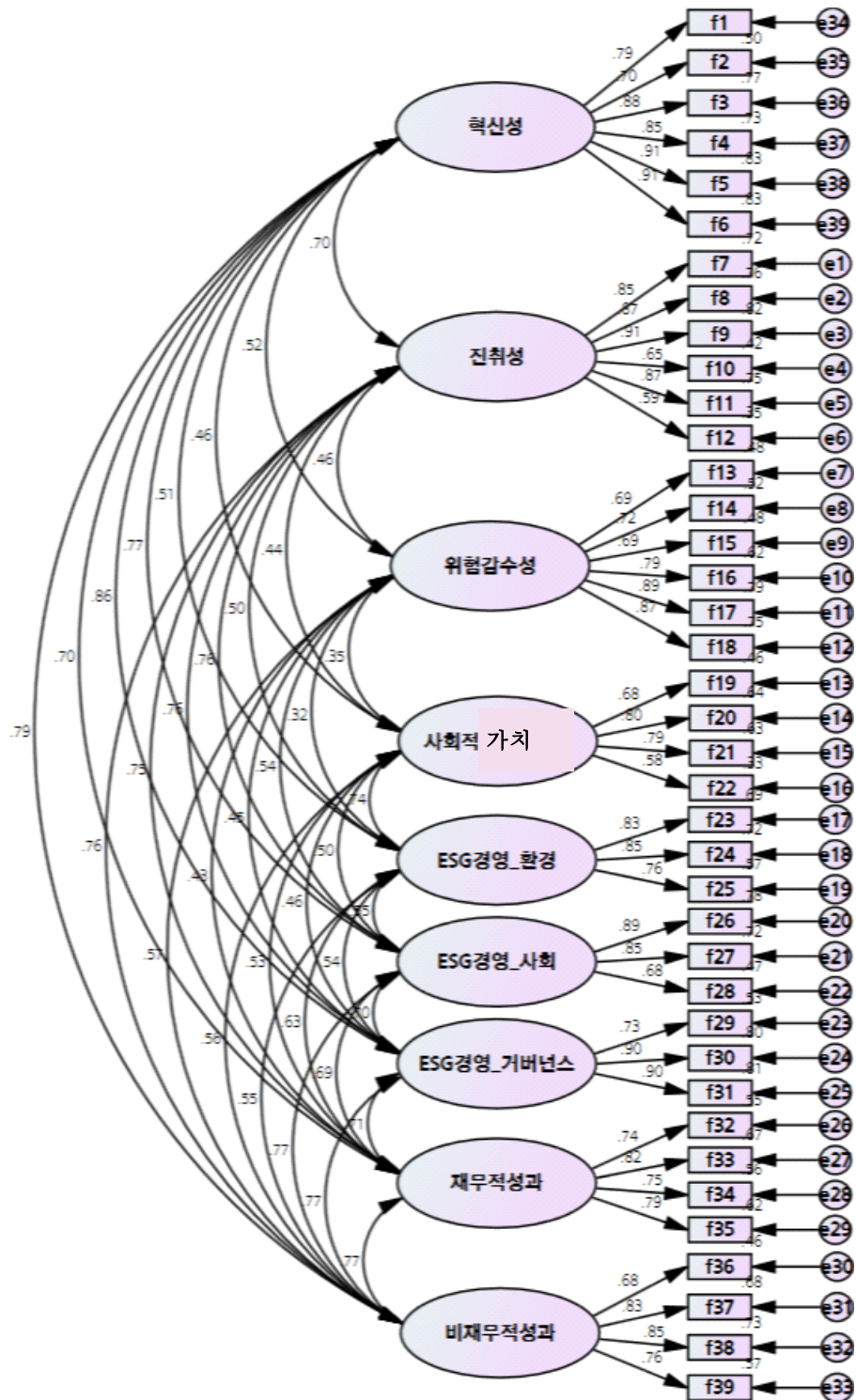
[표 4-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경영성과)

요인	측정문항	성분	
		1	2
경영성과 (비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2	.833	.272
	비재무적성과1	.798	.160
	비재무적성과3	.786	.373
	비재무적성과4	.711	.369
경영성과 (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2	.263	.858
	재무적성과1	.238	.802
	재무적성과3	.255	.779
	재무적성과4	.477	.654
고윳값(Eigen-value)		2.873	2.788
분산설명(%)		35.916	34.851
누적분산(%)		35.916	70.767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χ^2)	1637.916
	자유도(d.f)	28
	유의확률(P-value)	0.000

4.2.2 구조방정식 측정모델 확인적 요인분석(CFA)

앞서 개별 문항의 정규성 검증인 일변량 정규성 검증을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모델 검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하단의 [그림 4-1]에는 최초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하단의 <표 4-7>에는 최초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표 4-8>에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4-1] 측정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최초 모델)

본 연구의 총 측정문항은 39문항으로, 독립변수가 혁신성(6문항), 진취성(6문항), 위험감수성(6문항), 사회적 가치(4문항), ESG 환경(3문항), ESG 사회(3문항), ESG 거버넌스(3문항), 종속변수가 재무적 성과(4문항), 비재무적 성과(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총 22문항, ESG 경영이 총 9문항 그리고 경영성과가 총 8문항으로 전체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관측변수의 수가 25개에서 30개를 넘어가게 되면 ‘모형적합도’가 자연스럽게 낮아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단일차원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길 권고하고 있다(우종필, 2014; 허준, 2020).

하지만 이 방법은 2단계 구조방정식 구조모델 검증법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정보보다 오차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변수가 없는 관측변수로만 구성된다는데 있어 정보의 양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문항의 원취지와 의미가 손상되지 않게 하고자 요인적재치의 값이 .500-.700미만인 요인들을 모형 적합도가 충족될 때 까지 1문항 씩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의 기준을 참고하여 같은 관측변수 내에 존재하는 ‘오차항’과 ‘오차항’ 끼리 상관 연결하여 모형적합지수를 높이하고자 하였다(홍세희, 2000).

그리고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값의 기준이 .400미만인 측정 문항들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서 말한 세가지 충족 조건 기준에 따른 오차항 간의 상관 연결, 요인적재치의 값이 .500-.700사이의 측정문항을 제거할 것, SMC의 값의 기준이 .400미만인 측정문항을 제거할 것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조건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문항’들을 위주로 삭제하여 모형적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 계수값이 크게 상승되는 변화가 없거나, 모형적합도가 소폭 상승했을 경우 해당 문항은 제거하지 않고 관측변수 구성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최초모델의 모형적합도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MIN/D.F(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의 기준이 3.00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인다고 하고 5.000미만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최초모델의 경우 CMIN/DF=4.434로 나타났다. 또한 SRMR의 경우 SRMR=.080의 결과를 보여, 0.05미만의 값을 보여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였다(Collier et al., 2020).

나머지 복합지수인 NFI, IFI, TLI, CFI의 값은 .900이상의 값을 충족시켜야 모델의 적합도를 충족시킨다고 말하는데(Collier et al., 2020), NFI=.779, IFI=.820, TLI=.798, CFI=.818로 모두 .900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RMSEA의 경우 1.000미만의 결과는 무조건 충족시켜야 하며, 적합한 모델의 경우 통상적으로 .08미만 값의 결과를 요구한다(허준, 2020; 신건권, 2013; 우종필, 2020). 하지만 결과에서는 RMSEA=.095로 나타나 해당 적합도 지수 역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측정모델의 최초모델의 모형적합도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측정모델의 모형적합도 지수(최초모델)

구분	CMIN/DF	SRMR	NFI	IFI	TLI	CFI	RMSEA
최초 모형	4.434	.080	.779	.820	.798	.818	.095

CMIN/DF지수와 RMSEA의 지수의 값을 모형적합도의 범위를 관대하게 설정하는 선행연구의 학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충족되지만, 나머지 복합지수가 기준에 크게 근접하지 못해, 모형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측정모델의 관측변수를 제거하면서 모형적합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리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오차항간의 연결을 통하여 M.I.(Modification indices: 수정지수)를 높이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모델적합도 상승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해 최대한 자제하였다(배병렬, 2021; 우종필, 2020; 허준, 2020; Kline, 2015).

〈표 4-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최초모델)⁵⁾

			β	B	S.E.	CR (t-value)	p	AVE	CR
혁신성	→	혁신성1	.787	1.000				.711	.936
혁신성	→	혁신성2	.705	.846	.057	14.853	***		
혁신성	→	혁신성3	.875	1.196	.061	19.708	***		
혁신성	→	혁신성4	.853	1.145	.060	19.011	***		
혁신성	→	혁신성5	.909	1.192	.057	20.773	***		
혁신성	→	혁신성6	.912	1.183	.057	20.882	***		
진취성	→	진취성1	.850	1.000				.639	.912
진취성	→	진취성2	.874	1.186	.053	22.370	***		
진취성	→	진취성3	.907	1.057	.044	23.940	***		
진취성	→	진취성4	.648	.769	.054	14.164	***		
진취성	→	진취성5	.867	1.009	.046	22.044	***		
진취성	→	진취성6	.592	.565	.045	12.583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1	.693	1.000				.608	.902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2	.723	1.065	.081	13.115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3	.692	.816	.065	12.578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4	.786	1.075	.076	14.174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5	.890	1.209	.076	15.832	***		
위험감수성	→	위험감수성6	.868	1.176	.076	15.497	***		
사회적 가치	→	사회적가치1	.681	1.000				.518	.809
사회적 가치	→	사회적가치2	.803	1.093	.083	13.111	***		
사회적 가치	→	사회적가치3	.794	.992	.076	13.014	***		
사회적 가치	→	사회적가치4	.576	.919	.093	9.924	***		
ESG경영 (환경)	→	환경1	.828	1.000				.659	.853
ESG경영 (환경)	→	환경2	.848	.936	.052	18.039	***		
ESG경영	→	환경3	.757	.798	.050	15.863	***		

5) Note: 구조방정식 모델링 검증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치 표기로 테이블 결과 해석에 참고 바람(우종필, 2020; 배병렬, 2021). β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Estimates), B =비표준화 계수(Estimates), $S.E.$ =표준오차(Standard Errors), $C.R.$ =(Critical ratio: C.R: 회귀분석의 t -value에 해당.), AVE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환경)								
ESG경영 (사회) → 사회1	.885	1.000					.656	.850
ESG경영 (사회) → 사회2	.847	1.013	.049	20.834	***			
ESG경영 (사회) → 사회3	.683	.738	.049	15.061	***			
ESG경영 (거버넌스) → 거버넌스1	.731	1.000					.716	.882
ESG경영 (거버넌스) → 거버넌스2	.897	1.320	.076	17.431	***			
ESG경영 (거버넌스) → 거버넌스3	.899	1.331	.076	17.459	***			
재무성과 → 재무성과1	.744	1.000					.602	.858
재무성과 → 재무성과2	.818	1.143	.073	15.597	***			
재무성과 → 재무성과3	.750	1.019	.071	14.266	***			
재무성과 → 재무성과4	.788	1.060	.071	15.015	***			
비재무성과 → 비재무성과1	.676	1.000					.611	.862
비재무성과 → 비재무성과2	.826	1.301	.092	14.197	***			
비재무성과 → 비재무성과3	.855	1.369	.094	14.598	***			
비재무성과 → 비재무성과4	.757	1.321	.100	13.190	***			

*** $p < .001$

4.2.3 측정 모델의 수정 과정

다양한 문헌들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적합도 지수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된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순서대로 모형적합도 지수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김민규, 김주환, 홍세화, 2002; 허준, 2017).

첫째, 우선 요인적재치의 값이다. 표준화된 계수(Standardized Estimates)의 값이 되도록 .70에 근접한 요인들을 제외한 요인은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50미만인 요인들은 무조건 제거하였다.

둘째, 요인의 SMC기준의 값이 .40미만인 경우 문항을 제거하고자 하였다(우종필, 2020; 배병렬, 2015; 배병렬, 2021; 최창호, 유연우, 2017; Collier et al., 2020; Byrne, 2001; Kline, 2015).

셋째, 수정지수에서 제시하는 Regression weight의 값을 보고 해당 요인을 제거 했을 시, par-change가 높아지는 문항을 위주로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항 변수 간의 상호연결을 통한 적합도 지수 상승 방법은 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이 거론되었듯이, 이론적으로 확실한 근거나 연구자의 명백한 확신이나 주장 없이 오차항과 오차항의 연결을 남발하여 모형적합도를 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계수, 2014; Kline, 1998).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문항을 제거하게 되면 본래 해당 개념 변수가 담고 있는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며, 오차항 간의 상호연결을 남발하면 연구 가설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배병렬, 2021; 우종필, 2020; 허준, 2020; Kline, 2015).

이에 다음과 같은 순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째, 관측 변수의 요인적재치가 .500미만인 문항은 무조건 탈락시켜 관측변수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7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SMC값을 확인하여 .400미만의 문항을 탈락 시켰다.

세 번째,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제거했을 시 변화량인 par-change가 가장 큰 순서대로 문항을 1문항씩 제거하며 모형적합도를 관찰하였다. 또한 문항을 제거함과 동시에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를 반복하여 산출하여 ‘신뢰도 내적일관성’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오차항 간의 연결은 연구의 객관적인 결과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시키지 않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오차항 간의 연결을 통한 상관관계를 구성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해당 경우에 만약 모형적합도가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오차항 간의 상관 연결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연구자가 오차항을 1개씩 연결할 때 마다 모형적합도 지수의 변화와 연구 결과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 변수의 영향력 값인 표준화 계수와 해당 값의 방향성(양(+)인지, 음(-)인지), 그리고 유의확률이 95% 수준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차항을 연결 짓고자 하였다.

위의 순서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 6문항 가운데 혁신성1, 혁신성2, 혁신성3 3문항을 제거하였고, 진취성 6문항 가운데 진취성5, 진취성6 2문항을 제거하여 4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위험감수성의 경우 6문항 가운데 위험감수성1, 위험감수성2, 위험감수성3 3문항을 제거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최초 4문항에서 사회적 가치4 1문항을 제거하고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SG 경영의 경우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 차원 모두 최초 그대로 변경 없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영성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4 문항이 제거되어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비재무적 성과는 비재무적 성과4 문항을 제거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최종 모델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MIN/DF=3.587로 최초모델에 비하여 3.000에 훨씬 근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CMIN/DF의 결과가 3.00에서 5.00 사이의 값이 나오면 적합하다는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SRMR값 역시 수정모델의 경우, SRMR=.061의 값을 보여 기준인 .08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 적합도 지수들도 NFI=.871, IFI=.903, TLI=.882, CFI=.9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합한 모형적합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RMSEA의 값 또한 최초 모형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최종 모형의 경우 기준인 1.000미만의 조건은 무조건 충족시켜야 하며, .080미만의 경우 적합한 모델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수정된 모델은 RMSEA=.083로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4-9〉 측정모델 최종 모형적합도 지수

구분	CMIN/DF	SRMR	NFI	IFI	TLI	CFI	RMSEA
최종 모형	3.587	.061	.871	.903	.882	.902	.083

〈표4-10〉 측정모델의 최종 모델 결과

Construct (Variable)	factor	β	B	S.E.	CR (t-value)	p	AVE	CR
혁신성	f4	.837	.837				.828	.935
	f5	.947	.947	.044	25.288	***		
	f6	.942	.942	.043	25.082	***		
진취성	f7	.862	.862				.693	.899
	f8	.906	.906	.050	24.134	***		
	f9	.895	.895	.044	23.612	***		
	f10	.637	.637	.054	13.852	***		
위험감수성	f16	.699	.699				.735	.891
	f17	.937	.937	.080	16.625	***		
	f18	.916	.916	.079	16.522	***		
사회적 가치	f19	.65	.650				.572	.799
	f20	.821	.821	.095	12.396	***		
	f21	.787	.787	.085	12.140	***		
ESG 경영 (환경)	f23	.828	.828				.660	.853
	f24	.85	.850	.052	18.088	***		
	f25	.756	.756	.050	15.845	***		
ESG 경영 (사회)	f26	.888	.888				.656	.850
	f27	.844	.844	.048	20.820	***		
	f28	.683	.683	.049	15.106	***		
ESG 경영 (거버넌스)	f29	.716	.716				.714	.881
	f30	.905	.905	.080	16.964	***		
	f31	.901	.901	.081	16.903	***		
경영성과 (재무적 성과)	f32	.781	.781				.626	.834
	f33	.842	.842	.069	16.234	***		
	f34	.748	.748	.067	14.502	***		
경영성과 (비재무적 성과)	f36	.676	.676				.632	.836
	f37	.841	.841	.094	14.140	***		
	f38	.856	.856	.096	14.314	***		

*** $p < .001$

Note: β = 표준화된 계수(Standardized Estimates), C.R.=t-value, AVE=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CR=구성신뢰도

4.2.4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란 잠재변수 간의 일치성 여부의 정도를 판단하며 총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값이 높으면 집중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통 .05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07 이상의 요인적재치 값을 지니면 우수하다 한다.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누어 해당 값이 0.5이상이어야만 집중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이하; C.R.)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합한 값의 제곱을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누어 해당 값이 0.7이상일 경우에 집중타당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송지준, 2014)

집중타당도의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요인에 대한 회귀계수값이 커야하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임계치(Critical ratio)로 일컫는 t값에 해당하는 값이 2보다도 크게 나와야 한다. 표준화계수가 최소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0.7 이상의 요인들이 나오면 우수하다고 평가하지만, 대체적으로 0.6~0.7 사이의 수준에서 수용 가능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표의 항목(설문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집중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척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록 서로 상이한 지표이지만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면 집중타당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표가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연구자는 확인해야 한다(배병렬, 2021).

본 연구의 측정문항 모두가 요인적재치 값이 .637에서 .937의 수준을 보여 요인적재치 값이 .700이상일 경우 우수한 모델이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신뢰도인 C.R.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이 .572였으며 .828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에 모든 구성변수가 .700이상의 조건에 근접하거나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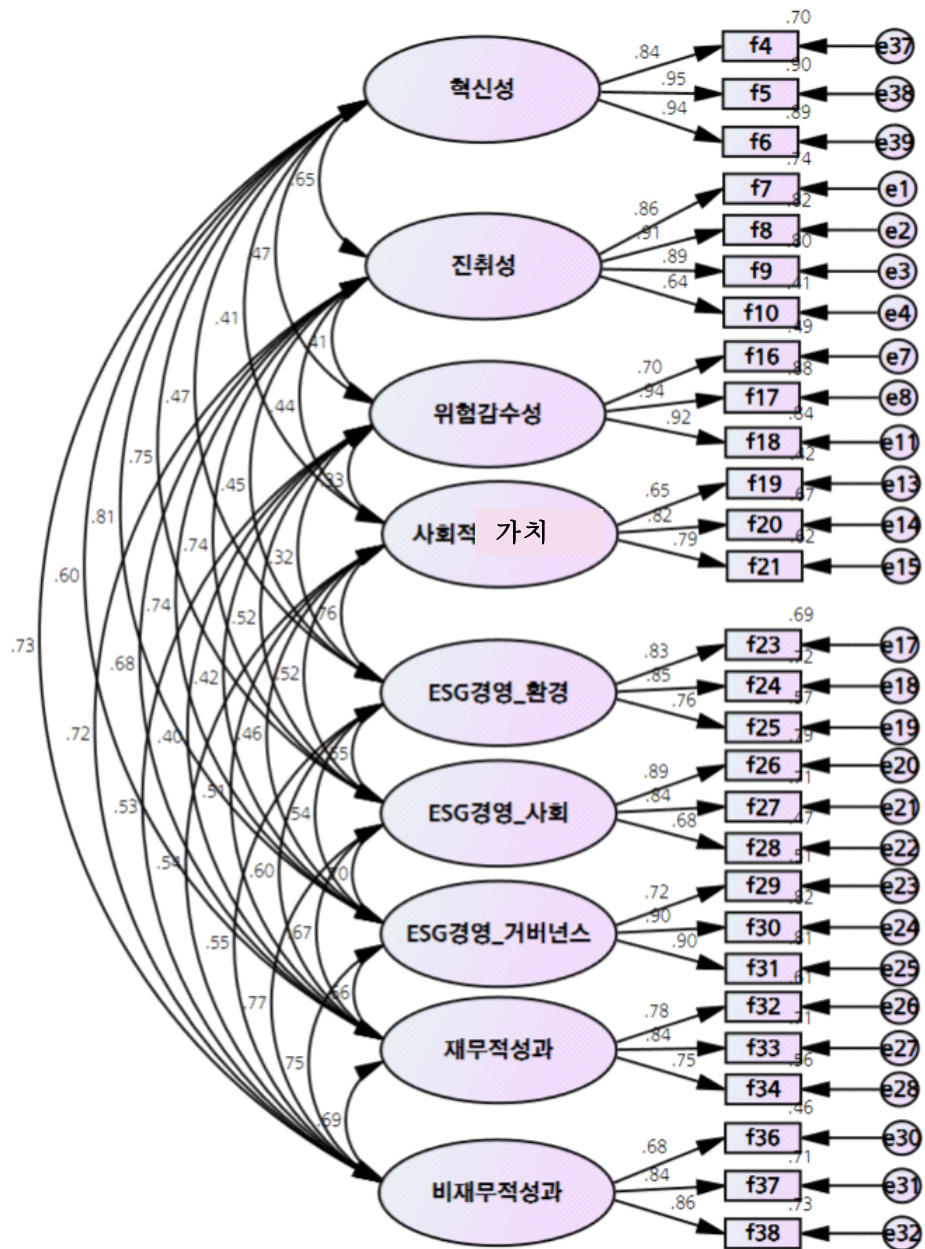
또한 AVE의 값 또한 .500이상이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본 연구는 .792가 가장 낮은 값이라 .50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모델의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4.2.5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

집중타당도에 이어, 판별타당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변수)들 간 측정치가 확실하게 서로 차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판단한다.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설문문항)가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이한 개념의 측정치들 간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개념들이 서로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념(변수)간의 상관관계 행렬, 상관행렬의 표준오차와 AVE 값이 필요하다. 특히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은 AVE의 값을 산출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계수를 제공 하였을 시 $AVE > \phi^2$ 를 이용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한다. 정리하자면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ϕ^2)이 AVE값 보다도 작으면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최종모델의 상관관계계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S)와 재무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68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별타당도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값을 제공한 $\phi^2 = .464$ 보다도 AVE값이 더 높아야만 한다. <표4-10>에 제시되어 있는 AVE값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660, 재무적 성과의 AVE값이 .626을 보이고 있어, 상관계수의 제곱 값 $\phi^2 = .464$ 보다도 AVE값이 더 높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판별타당도 역시 확보하였다.



[그림 4-2] 최종 모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하단에 제시된 <표4-11>은 최초모형의 측정모델의 적합도 값과 모형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측정모델의 적합도 값을 카이스퀘어 값과 다른 복합지수의 값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초모형의 경우 CMIN/DF의 값이 4.434였지만 최종모형은 3.587로 감소하였다. 우수한 모델인 경우 CMIN/DF값이 3.00미만이면 좋지만, 대개의 경우 3.00부터 5.00사이에 포함되면 모형적합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SRMR은 .50에서 .80미만의 값을 보일 때 적합하다고 말한다(D SHI, 2019; Lee et al., 2018). 최초모형이 .80이었다면 최종모형에서는 .061로 값이 하락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

GFI와 AGFI의 지수 적합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800이상의 값을 보여야 하는데, 최초모형에서는 .800보다 많이 모자란 GFI=.711, AGFI=.662를 보였다면 수정된 최종모형에서는 GFI=.872, AGFI=.822로 모형이 좋아지며 지수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800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방정식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Kai wang et al., 2019; 김은주, 2013).

NFI, IFI, TLI, CFI의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서야, 일반적으로 .900이상이면 우수한 모형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Hu & Bentler(1999)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80에서 .85이상일 경우에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주장한다.

최초모형에서는 NFI=.779, IFI=.820, TLI=.798, CFI=.818로 모두 .900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차선택으로 고려되고 있는 .800의 기준에도 NFI와 RFI의 값 그리고 TLI의 값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모형의 경우 NFI와 TLI가 900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 복합지수들은 .900 이상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MSEA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방정식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데, 1.00미만의 기준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800미만이면 적합하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경우 최초모형은 .095의 RMSEA 지수를 보였으나 최종모형에서 .083을 보여 무조건 1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과 .800 미만일 경우 적합한 수준이라는 기준에 근접함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초모형에 비해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훨씬 더 상향되어 연구 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차항 간의 연결 없이, 최대한 모형 적합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충족되므로 해당 모델을 최종모델로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차원인 혁신성 3문항, 진취성 4문항, 위험감수성 3문항, 사회적 가치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ESG 환경의 경우 환경 3문항, 사회 3문항, 거버넌스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각각 3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투입될 관측변수는 모두 총 28문항에 해당 된다. 이는 2단계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는데 관측변수가 30문항 미만 일 경우 모형적합도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선행연구의 충고 기준에도 부합하였다.

〈표4-11〉 최초모형과 최종모형 간의 모델 적합도 지수 결과

구분	CMIN/DF	SRMR	NFI	IFI	TLI	CFI	RMSEA
최초 모형	4.434	.080	.779	.820	.798	.818	.095
최종 모형	3.587	.061	.871	.903	.882	.902	.083

4.2.6 측정도구 내적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검증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인하여, 최종 측정 도구인 구성개념인 변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최종 구성된 변수의 내적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α) 값으로 산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 신뢰도의 적합 기준은 과거 Nunally(1978)가 제시하였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Drost(2021)의 기준을 따라 .600이상이면 내적신뢰도를 갖춘 측정문항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 또한 .600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경우 진취성 크론바흐 알파=.932, 혁신성 크론바흐 알파=.892, 위험감수성 크론바흐 알파=.847, 사회적 기업가 정신 크론바

호 알파=.842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4가지 차원은 모두 내적 일관성을 갖춰 신뢰도가 .600이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ESG 경영의 3가지 차원의 경우 환경 크론바흐 알파=.870, 사회 크론바흐 알파=.842, 거버넌스 크론바흐 알파=.825로 3차원 모두 각각 내적신뢰도를 갖춰 구성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크론바흐 알파=.828, 비재무적 성과 크론바흐 알파=.838로 .800이상의 우수한 수준의 내적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4-12] 크론바흐 알파계수 신뢰도 검정

	Cronbach's Alpha(α)	문항 수
혁신성	.892	3
진취성	.932	4
위험감수성	.847	3
사회적 가치	.842	3
환경	.870	3
사회	.842	3
거버넌스	.825	3
재무적 성과	.828	3
비재무적 성과	.838	3

본 연구는 앞서 표본의 정규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치고, 크론바흐 알파계수 값을 토대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기준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4.2.7 구성개념의 기본특성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앞서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모두 마친 뒤 확정된 최종 측정변수의 평균

(Mean), 표준편차(SD) 등의 변수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4가지 변수는 혁신성(M=3.742), 진취성(M=3.910), 위험감수성(M=2.819), 사회적 가치(M=3.583)로 각각의 평균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중 진취성이 가장 높았고, 위험감수성이 가장 낮았다. 평균 순으로 나열하면 진취성>혁신성>사회적 가치>위험감수성 순서를 보였다.

다음으로 ESG 경영은 환경(M=3.780), 사회(M=3.600), 거버넌스(M=3.874)의 평균을 각각 보였으며,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이었고 사회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의 두 차원인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M=3.997)의 평균이 비재무적 성과(M=3.7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는 $-.011 \sim -1.142$ 의 값을 보여 절대값을 기준으로 ± 3 미만의 결과를, 엄격한 기준에서는 ± 2 미만을 보여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의 경우 $.082 \sim 1.658$ 의 값을 보여 첨도 또한 절대값을 기준으로 ± 2 미만의 결과를 보여, 정규성에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최종 구성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Construct	M	SD	S.E.	Skewness	Kurtosis
혁신성	3.742	1.142	.059	-.943	.082
진취성	3.910	.926	.048	-.693	-.218
위험감수성	2.819	1.159	.060	-.011	-.831
사회적 가치	3.583	.846	.043	-.519	.347
환경	3.780	.836	.043	-.748	.918
사회	3.600	.942	.048	-.457	-.296
거버넌스	3.874	1.043	.054	-.948	.196
재무적성과	3.997	.872	.045	-1.142	1.658
비재무적성과	3.793	.865	.044	-.630	.215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 전에, 최종 확정된 구성 변수들이 앞서 세운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 경우 사회적 가치($r=.636$, $p<.01$)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혁신성($r=.432$, $p<.01$), 진취성($r=.427$, $p<.01$), 위험감수성($r=.297$, $p<.01$)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와의 관계는 혁신성($r=.676$, $p<.01$)이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취성($r=.654$, $p<.01$), 위험감수성($r=.495$, $p<.01$), 사회적 가치($r=.489$, $p<.01$) 순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Governance)와의 관계는 혁신성($r=.768$, $p<.01$)이 거버넌스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취성($r=.682$, $p<.01$), 위험감수성($r=.411$, $p<.01$), 사회적 가치($r=.413$, $p<.0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r=.600$, $p<.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r=.544$, $p<.01$)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r=.423$, $p<.01$)에 이어 위험감수성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r=.366$, $p<.0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는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r=.657, p<.0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혁신성과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r=.654, p<.01$), 위험감수성과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r=.470, p<.01$), 사회적 가치와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r=.347, p<.01$) 차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거버넌스와 재무적 성과($r=.601, p<.01$)의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와 재무적 성과($r=.556, p<.01$), 환경과 재무적 성과($r=.523, p<.01$) 순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성과는 거버넌스와 비재무적 성과($r=.681, p<.01$)가 가장 관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와 비재무적 성과($r=.656, p<.01$), 환경과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r=.465, p<.0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여 요약하자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 혁신성과 사회, 혁신성과 거버넌스의 관계가 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의 관계 역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거버넌스와 재무적 성과가 높았고 역시 거버넌스와 비재무적 성과도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측정 변수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사회적 가치	환경	사회	거버 넌스	재무적 성과	비재무 적성과
혁신성	—								
진취성	.605**	—							
위험감수성	.441**	.393**	—						
사회적 가치	.334**	.345**	.263**	—					
환경	.432**	.427**	.291**	.636**	—				
사회	.676**	.654**	.489**	.417**	.495**	—			
거버넌스	.768**	.682**	.411**	.413**	.494**	.633**	—		
재무적성과	.544**	.600**	.366**	.423**	.523**	.556**	.601**	—	
비재무적성과	.654**	.657**	.467**	.415**	.465**	.656**	.681**	.5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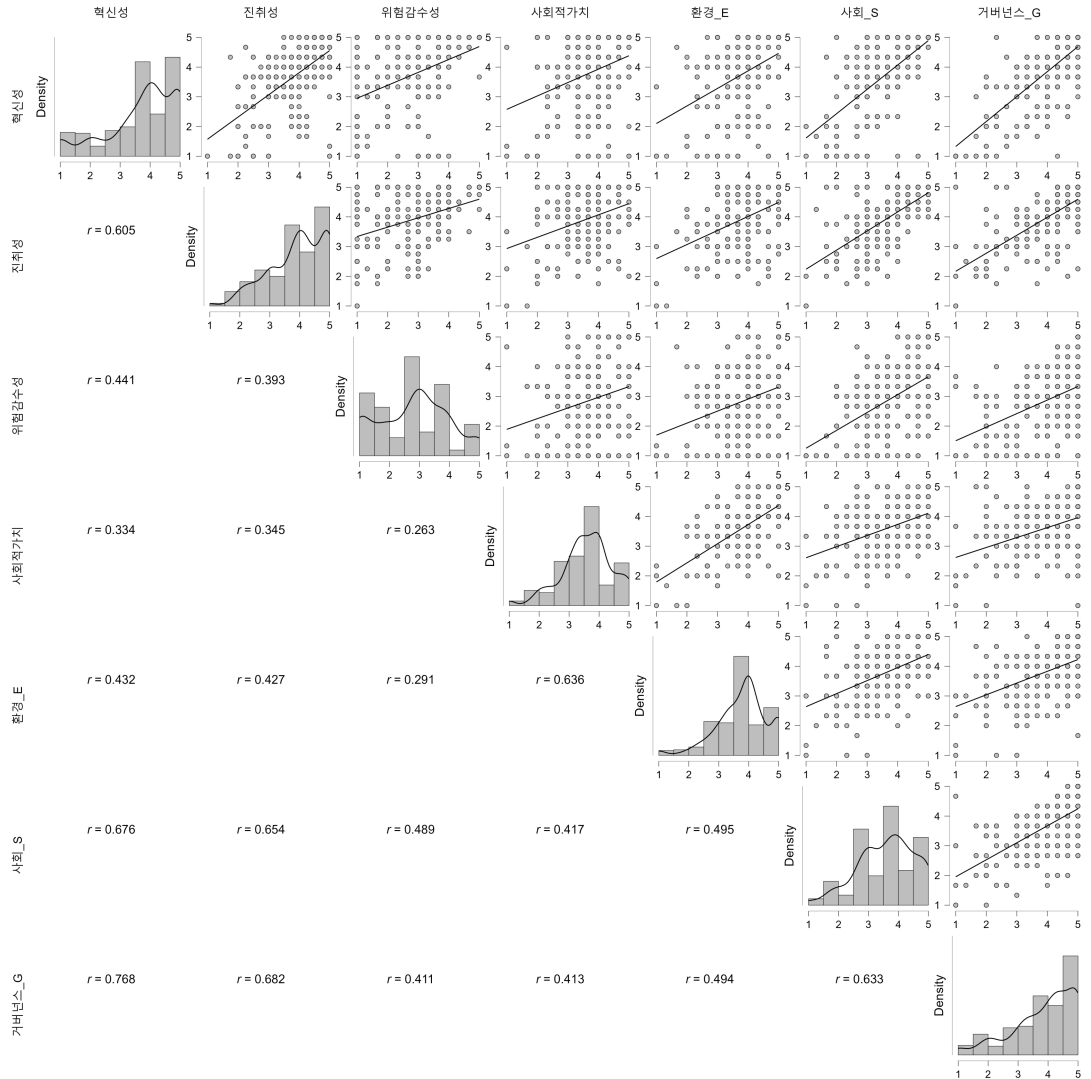
** $p < .01$

다음으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설1>, <가설2>, <가설3>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비주얼 그래픽으로 [그림 4-3]에 제시하였고 <가설4>, <가설5>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역시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6>, <가설7>의 상관관계 결과를 [그림 4-5]에 제시하였다.

JASP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비주얼 그래픽은 R과, Syntax를 기반으로 만든 SPSS와 같은 그래픽 친화형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명하였다(Marsman & Wagenmakers, 2017).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ggplot2 패키지(Gomez-rubio, 2017)를 이용해 비주얼 그래픽으로 나타냈는데, 편리하게 비주얼 파일 이동이 가능해 연구결과 제시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데 널리 쓰인다. 또한 dot-plot으로 응답자 가운데 리커트 척도 5점 가운데 어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지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설>의 관계는 선형 곡선(Linear curve)으로 이를 표기하였다.

각 그래프의 x축인 세로축은 <가설>의 독립변인에 해당되며 y축인 가로

축은 종속변수에 해당 된다. 따라서 x축이 증가할수록 y축 역시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면 관계의 정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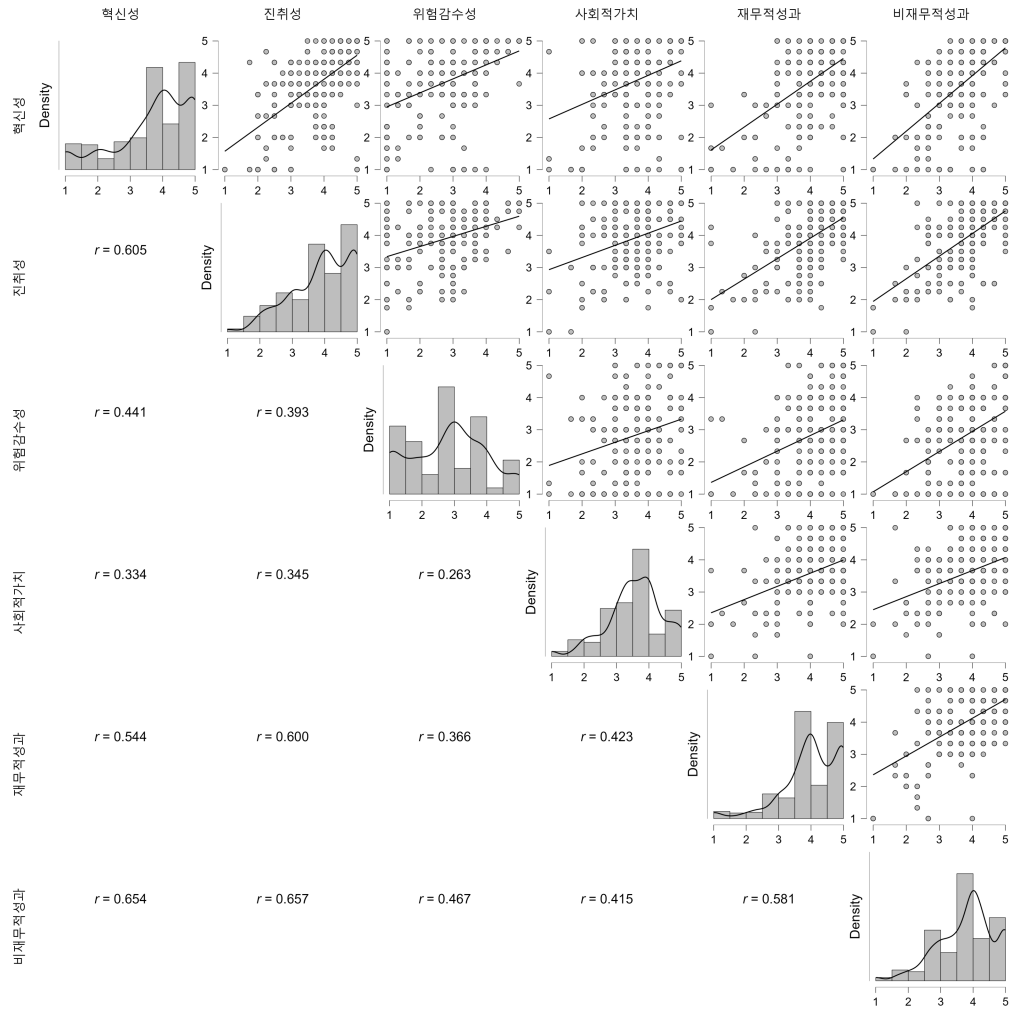


[그림4-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그림4-3]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에 있어, 가령 환경(E) 요인에서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낮은 위험감수성($r=.291$)의 경우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반면,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높은 사회적 가치($r=.636$)의 경우 곡선의 기울기가 x축의 독립변인인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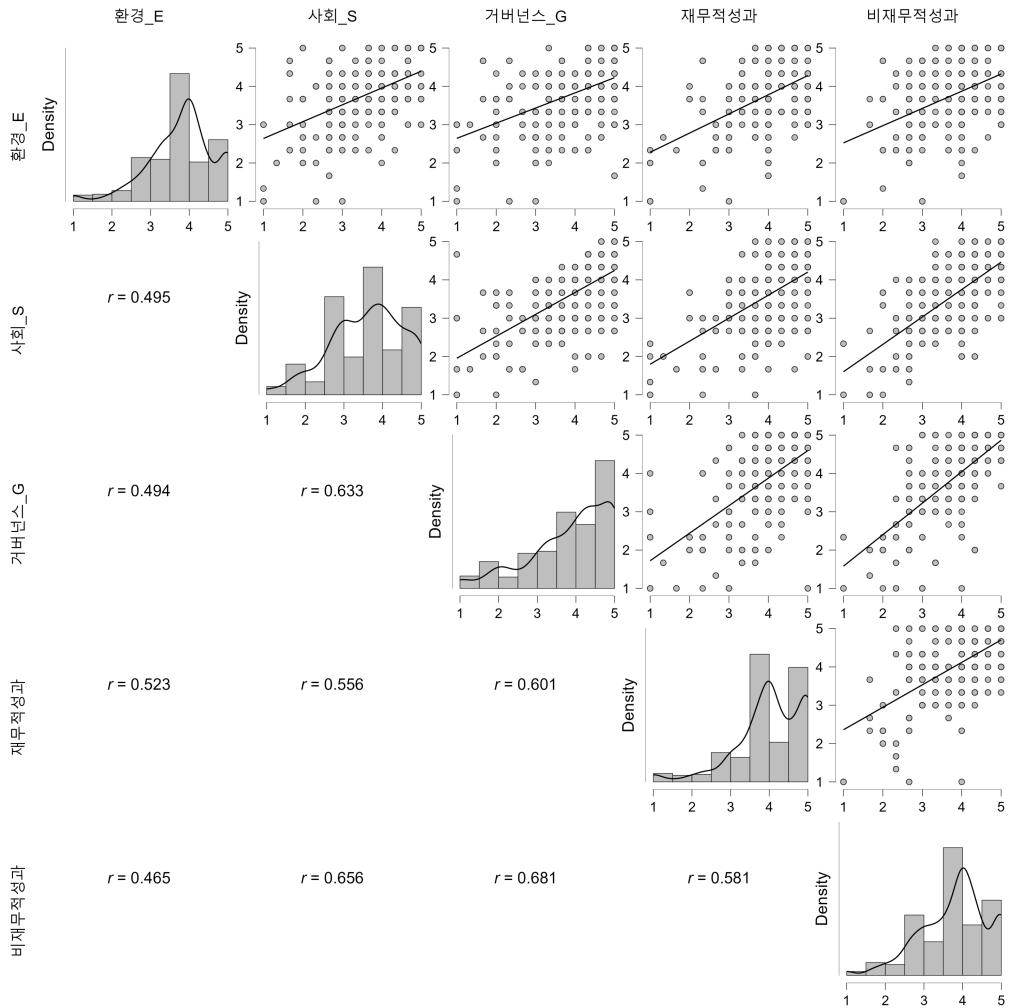
수록 y축에 해당되는 ESG 환경(E)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관계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ESG 경영 사회(S)요인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가운데 혁신성($r=.676$)과 진취성($r=.654$)의 관계가 가장 높는데 해당 두 변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가치($r=.413$)의 경우 ESG 경영 사회(S)요인과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그래프 보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혁신성($r=.768$)이 가장 관계가 높았으며 혁신성의 경우 혁신성과 ESG 경영 거버넌스(G) 간에 있어 그래프가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상당히 매우 높음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 경영성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그림 4-4]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우선 재무적 성과의 경우 그래프 곡선의 기울기가 진취성, 혁신성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가치의 곡선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의 완만함과 가파름은 두 변수 간의 r-value 값에 따라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ESG경영과 제조업 기업 경영성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그림 4-5]에서는 ESG 경영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우선 재무적 성과의 경우 그래프 곡선의 기울기가 거버넌스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거버넌스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r=.6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거버넌스($r=.681$)와 사회($r=.656$)이 비슷하게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은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다.

4.3 연구 결과

4.3.1 구조모델 분석 및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구조모델에서는 총 9개의 잠재변수가 구성되며, 총 28문항의 관측변수가 각각의 잠재변수를 구성할 것이다. 이에 9개의 잠재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어떠한지를 경로를 연결하여, 최종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구성된 관측변인만 가지고 ‘경로분석(path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2단계 접근 방법에 비해 훨씬 더 채택되는 가설이 많아 유의미한 결과를 상당수 보였으나, 구조모델 검증법보다 설명력이 훨씬 적으며 오류 또한 다수 존재하여, 이미 모형적합도를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족하고 있으므로, 측정문항수가 25개를 넘어서더라도, 경로분석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구조모델 분석을 계속하였다.

구조모델의 적합도 분석결과 CMIN/DF=3.80으로 5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SRMR값은 .07로 반드시 1.00 미만이어야 하며 .05미만 일 경우 좋은 모델이라는 기준에 비교적 부합하였고, NFI, IFI, TLI, CFI의 경우 .900 이상이어야 좋은 모델적합도를 보인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요인을 제거해야만 적합도를 향상시키거나, 이론적인 틀과 논리 없이 오차항을 마구잡이로 연결해 모형적합도를 높이는 것 보다는 .800 이상이며 .900에 근접한 수준을 보일 경우, 해당 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 해도 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Kline, 2012).

마지막 RMSEA는 1 미만이어야 하며 .08 미만이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RMSEA=.09를 보여 1미만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므로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에 연구 문제 및 가설 검증을 위해 가설의 경로에 따라 경로계수를 연결한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의 적합도는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고). 따라서 큰 문제가 없어 최종 모델로 설정하였다.

〈표 4-15〉 구조모델 모델 적합도 지수 결과

구분	CMIN/DF	SRMR	NFI	IFI	TLI	CFI	RMSEA
최종 모형	3.80	.07	.86	.89	.87	.89	.09

4.3.2 연구 가설 검증 결과

4.3.2.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가설(Hypothesis)
H1.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환경(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사회(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거버넌스(G)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1〉, 〈가설2〉, 〈가설3〉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의 각각의 차원인 환경 요인(E), 사회 요인(S), 거버넌스 요인(G)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가설〉을 설정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1〉 ESG 경영의 환경 요인(E)에 있어서는 ‘혁신성’(혁신성($\beta=.170$, $t=2.716$, $p<.001$)과 ‘사회적 가치’($\beta=.677$, $t=9.324$, $p<.01$) 두 변수가 환경 요인(E)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 지지 되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혁신성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ESG 경영 환경 요인(E)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사회 요인(S)의 경우 ‘혁신성’($\beta=.381$, $t=6.995$, $p<.001$), ‘진취성’($\beta=.367$, $t=6.855$, $p<.01$), ‘위험감수성’($\beta=.120$, $t=2.691$, $p<.01$), ‘사회적 가치’($\beta=.186$, $t=4.003$, $p<.001$) 4개의 차원이 모두 ESG 경영 사회(S)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진취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ESG 경영 사회(S)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성과 사회

적 가치의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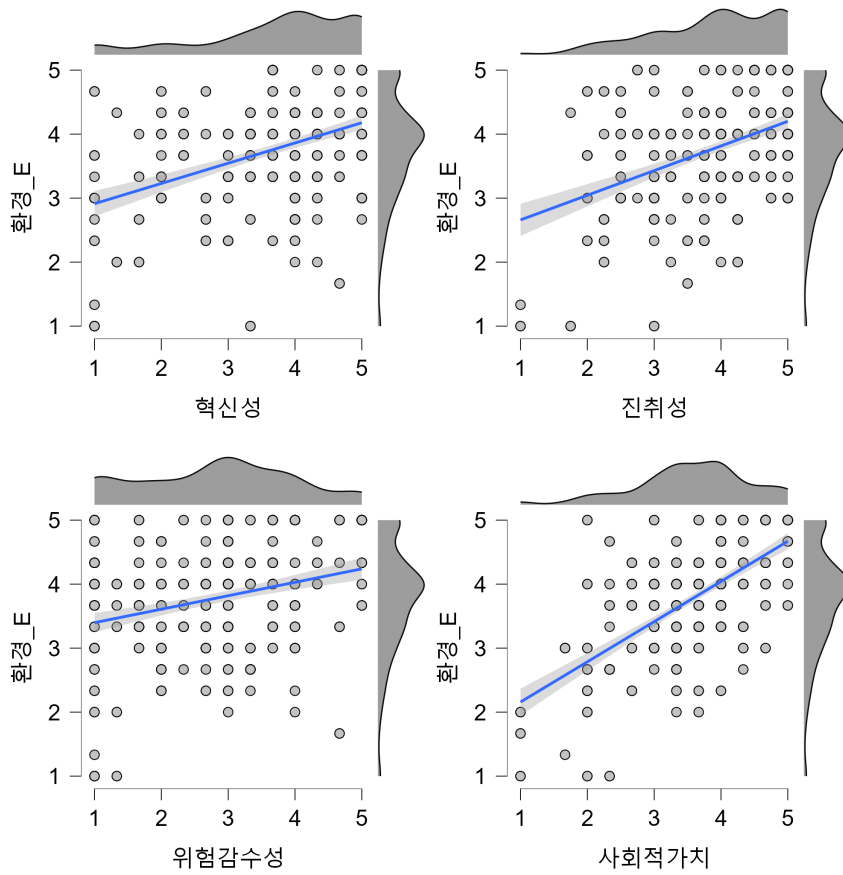
〈가설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거버넌스 요인(G)에 있어서는 ‘혁신성’($\beta=.552$, $t=9.514$, $p<.001$), ‘진취성’($\beta=3.41$, $t=6.643$, $p<.001$), ‘사회적 가치’($\beta=.102$, $t=2.45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SG 경영 거버넌스 요인(G)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혁신성이 ESG 경영 거버넌스 요인(G)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진취성이었고, 사회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ESG경영 거버넌스 요인(G)에 유의하기는 하지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의 경우 위험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투자가 진행되는 데, 투명한 지배구조의 상태에서는 과감한 투자로 인한 위험감수를 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1〉, 〈가설2〉, 〈가설3〉을 검증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하단의 [표 4-16]에 상세히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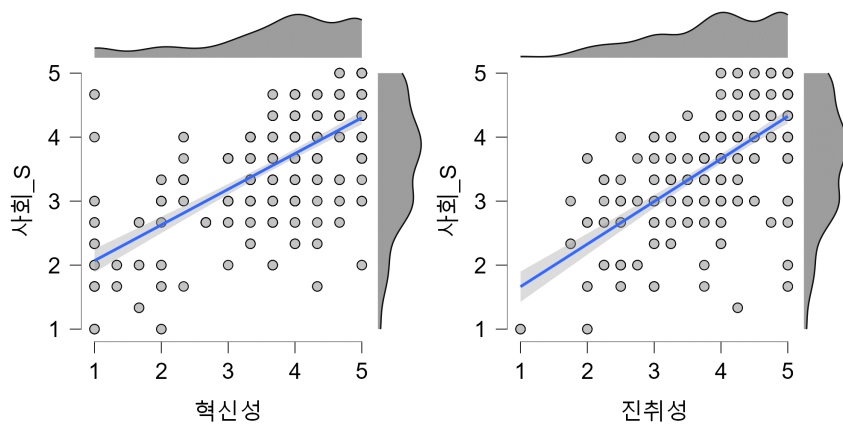
[표 4-16] 〈가설1〉, 〈가설2〉, 〈가설3〉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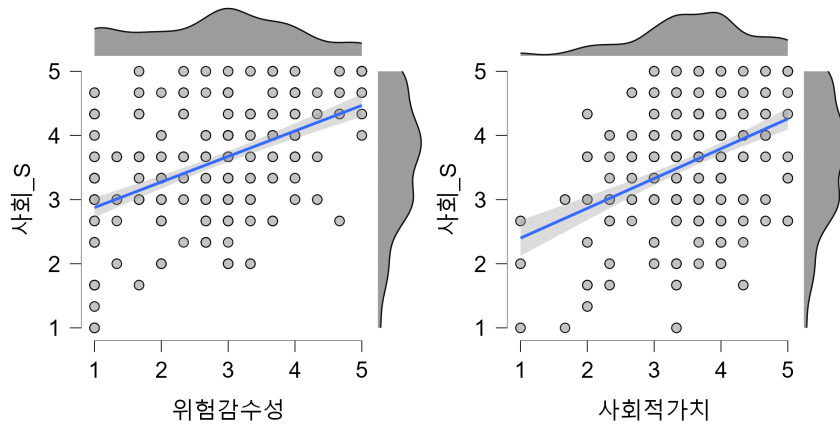
경로			β	B	$S.E.$	$C.R.$ (t -value)	p	가설채택
H1.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환경요인(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	→	ESG환경	.170	.139	.051	2.716	**	채택
진취성	→	ESG환경	.067	.064	.059	1.087	.277	기각
위험감수성	→	ESG환경	-.044	-.034	.041	-.838	.402	기각
사회적 가치	→	ESG환경	.677	.808	.087	9.324	***	채택
H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사회요인(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	→	ESG사회	.381	.349	.050	6.995	***	채택
진취성	→	ESG사회	.367	.396	.058	6.855	***	채택
위험감수성	→	ESG사회	.120	.105	.039	2.691	**	채택
사회적 가치	→	ESG사회	.186	.250	.062	4.003	***	채택
H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거버넌스요인(G)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	→	ESG거버넌스	.552	.424	.045	9.514	***	채택
진취성	→	ESG거버넌스	.341	.308	.046	6.643	***	채택
위험감수성	→	ESG거버넌스	-.010	-.008	.030	-.260	.795	기각
사회적 가치	→	ESG거버넌스	.102	.115	.047	2.451	*	채택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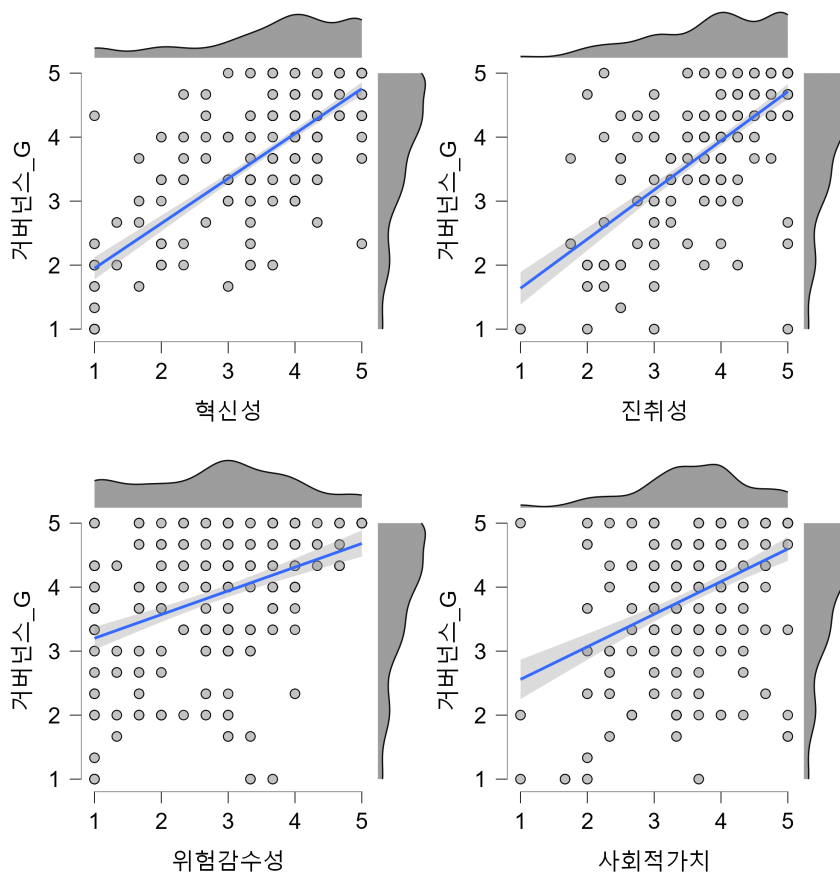


[그림 4-6] 가설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환경(E) 결과





[그림 4-7] 가설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사회(S) 결과



[그림 4-8] 가설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거버넌스(G) 결과

4.3.2.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결과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와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가설 4>로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가설5>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Hypothesis)
H4.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결과 <가설4> 재무적 성과에는 진취성($\beta=.302$, $t=3.768$, $p<.001$) 하나의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나머지 혁신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진취성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의미하므로 재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5>인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혁신성($\beta=.133$, $t=1.646$, $p<.05$), 진취성($\beta=.183$, $t=2.626$, $p<.01$), 위험감수성($\beta=.123$, $t=2.637$, $p<.01$)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고 있었다. 반면 사회적 가치는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영향력 순으로 볼 때 진취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고, 다음으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재무적 성과에는 진취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비재무적 성과에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지 요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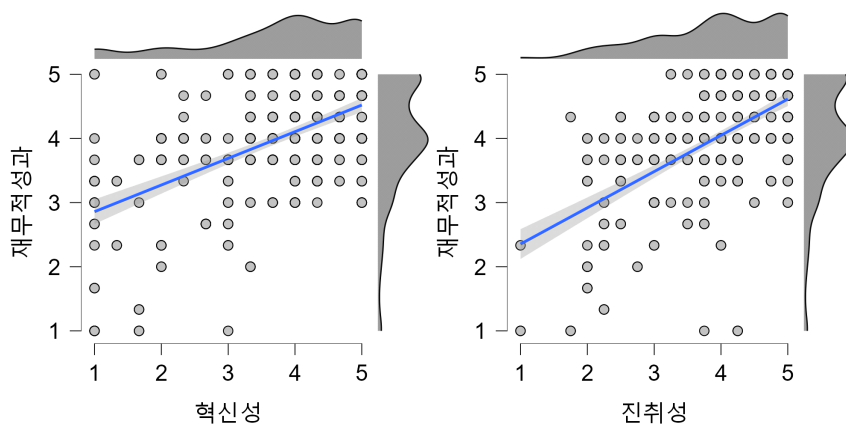
제조업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향상을 기대하는데 있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반면 비재무적 성과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력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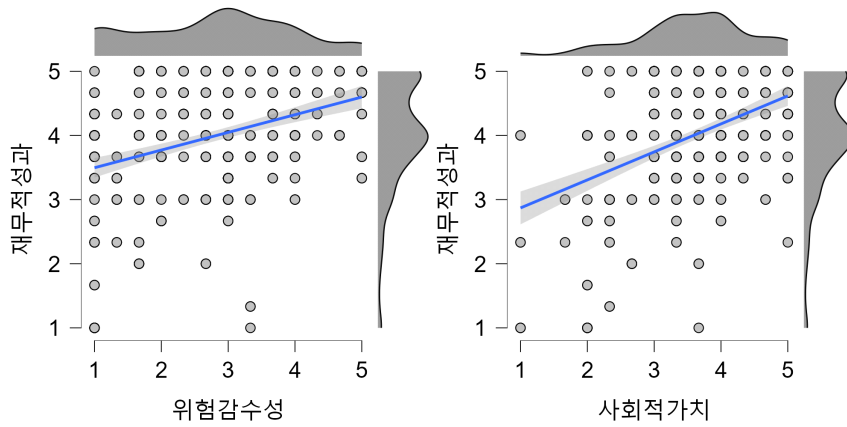
타났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조업 기업에서 장려한다면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재무적 성과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표 4-17] 가설4, 가설5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제조기업의 경영성과 간 관계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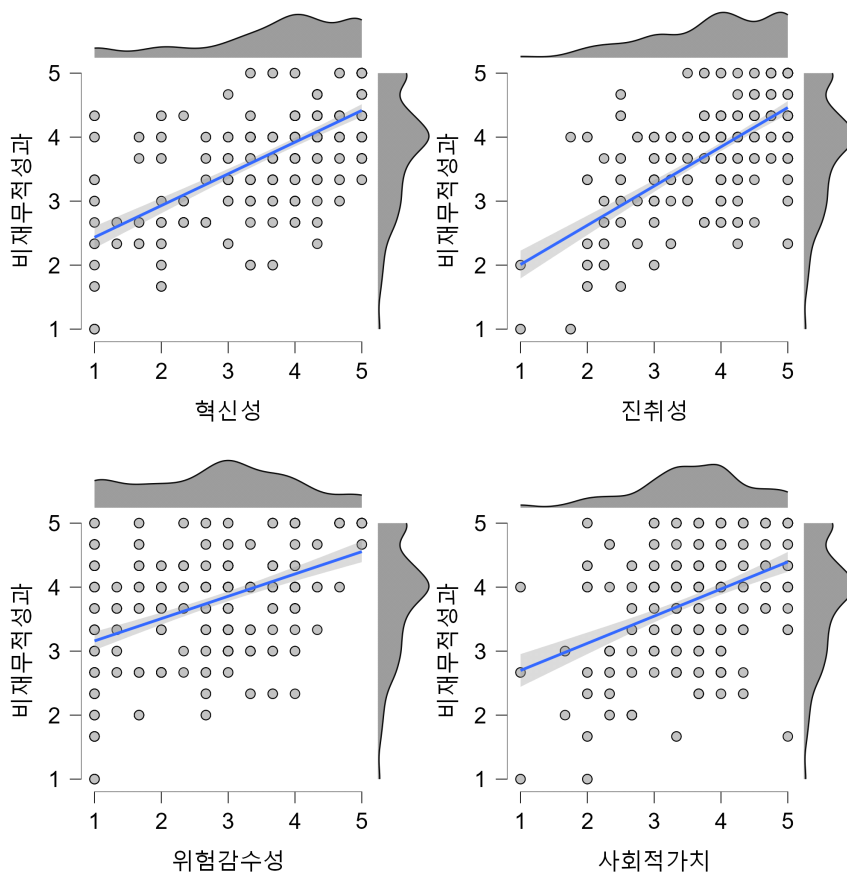
경로			β	B	$S.E.$	$C.R.$ (t -value)	p	가설채택
H4.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	→	재무적 성과	.028	.021	.069	.307	.759	기각
진취성	→	재무적 성과	.302	.265	.070	3.768	***	채택
위험감수성	→	재무적 성과	-.021	-.015	.038	-.404	.686	기각
사회적 가치	→	재무적 성과	.001	.001	.098	.015	.988	기각
H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133	.082	.050	1.646	*	채택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183	.133	.051	2.626	**	채택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123	.073	.028	2.637	**	채택
사회적 가치	→	비재무적 성과	.092	.083	.071	1.175	.240	기각

* $p<.05$, ** $p<.01$, *** $p<.001$





[그림 4-9] 가설4 검증 연구 결과



[그림 4-10] 가설5 검증 연구 결과

4.3.2.3 ESG 경영과 제조업 기업 경영성과의 관계 검증 결과

가설(Hypothesis)
H6.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6>과 <가설7>을 ESG 경영의 세 차원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가설6>으로,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가설7>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6>의 결과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은 환경 요인(E)($\beta=275$, $t=3.16$, $p<.01$)과 사회 요인(S)($\beta=.174$, $t=1.845$, $p<.05$)이 유의하게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해당 두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재무적 성과에 있어 환경의 영향력이 사회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7>에 해당하는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은 사회($\beta=244$, $t=2.903$, $p<.01$)와 거버넌스($\beta=217$, $t=2.501$, $p<.05$) 두 가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으로 <가설6>의 재무적 성과에는 환경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면 비재무적 성과에는 환경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설7>에서의 거버넌스의 경우 재무적 성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비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제조업 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제조업 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탄소배출과, 에너지소모, 폐기물 발생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환경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일 뿐 아니라 실패 시 재무적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환경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오히려 비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이 도출 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에 따라서 ESG 경영의 각 차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검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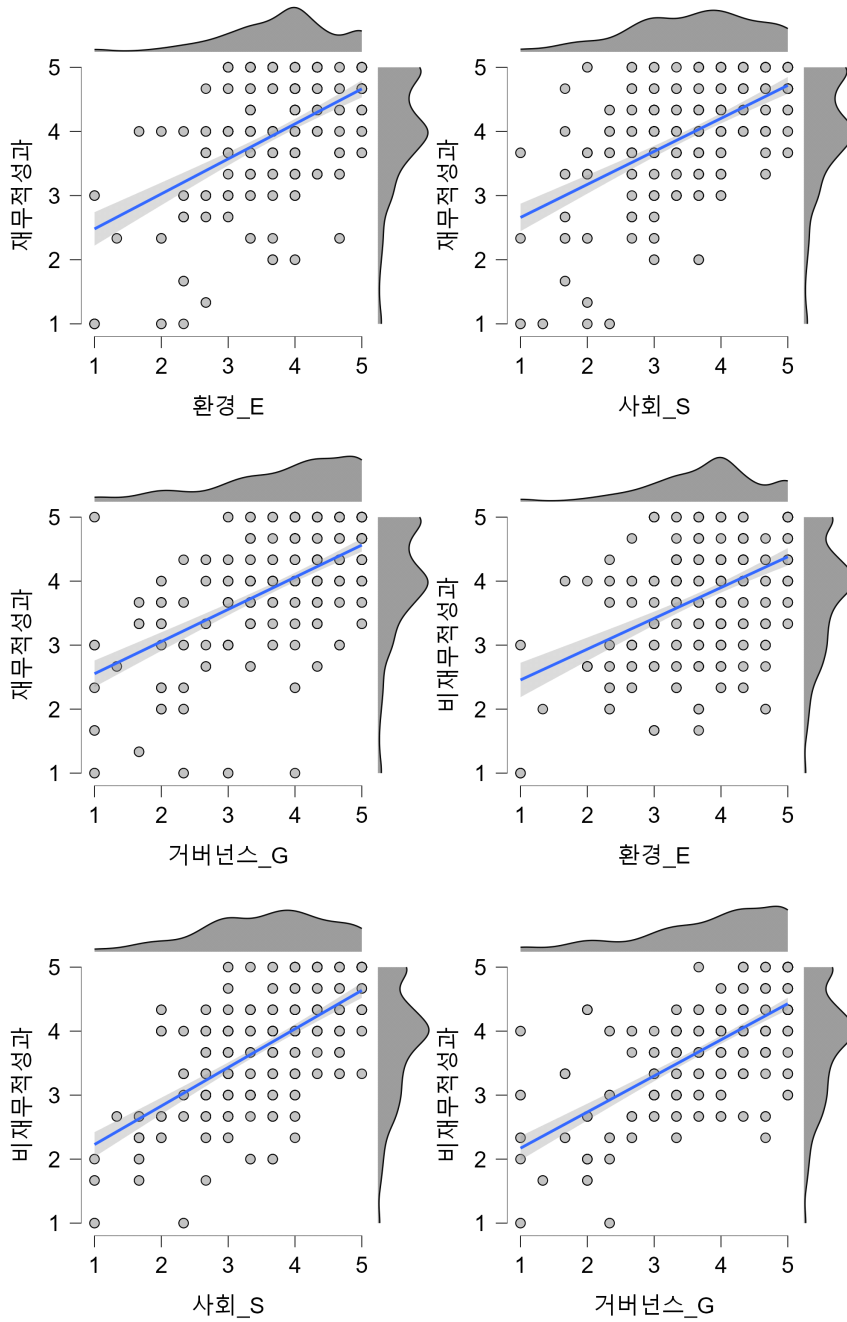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가설6>의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기업에 있어서, ESG 경영의 환경과 사회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장려하면, 결국 재무적 성과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사회와 거버넌스를 장려하면 비재무적 성과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특히 <가설6>과 <가설7>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ESG 경영 요인의 영향력에 있어 ESG 경영의 사회 요인(S)의 경우 재무적 성과<가설6>와 비재무적 성과<가설7>, 즉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검증되어, ESG 경영 가운데서도 사회 요인(S)의 중요성을 제조업 기업에서 인지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경영 전략 수립 및 방향 제시를 한다면, 향후 제조업 기업의 기업 경영성과 증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8] 가설6, 가설7 ESG 경영환경과 제조기업의 경영성과 간 검증 결과

경로			β	B	$S.E.$	$C.R.$ (t -value)	p	가설채택
H6.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SG 환경	→	재무적 성과	.275	.253	.080	3.163	**	채택
ESG 사회	→	재무적 성과	.174	.142	.077	1.845	*	채택
ESG 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	.160	.156	.095	1.637	.102	기각
H7.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SG 환경	→	비재무적 성과	.060	.045	.057	.800	.424	기각
ESG 사회	→	비재무적 성과	.244	.164	.057	2.903	**	채택
ESG 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217	.175	.070	2.501	*	채택

* $p < .05$, ** $p < .01$



[그림 4-11] 가설6, 가설7 연구 결과

4.3.2.4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

가설(Hypothesis)
H8.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H9.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을 거쳐, 최종지점인 종속변수에 다다른 것을 말하고, 이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혹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MacKinnon et al., 2000).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첫째, 바론과 캐니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식과 둘째, Hayes(2016)의 부트스트래핑 방식의 검증 방법에 오차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정확한 계산과 추정이 어려우며, 다중매개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AMOS 프로그램으로 매개분석을 하는데 있어, 특히 매개변인이 여러 개일 경우 다중매개변수를 검증함에 AMOS의 프로그램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설현수(2019)의 연구에서도 AMOS를 통한 다중매개분석 실시에 있어 많은 허점이 존재하며, 이에 Jamov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GLM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기존의 SPSS를 활용한 3단계 매개분석, Hayes의 부트스트래핑 검증법, 소벨테스트 검증법 등에 비하여 믿을 만한 결과치를 제시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Jamovi를 활용한 GLM 다중매개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가설들을 바탕으로 ESG 경영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요인과 기업성과인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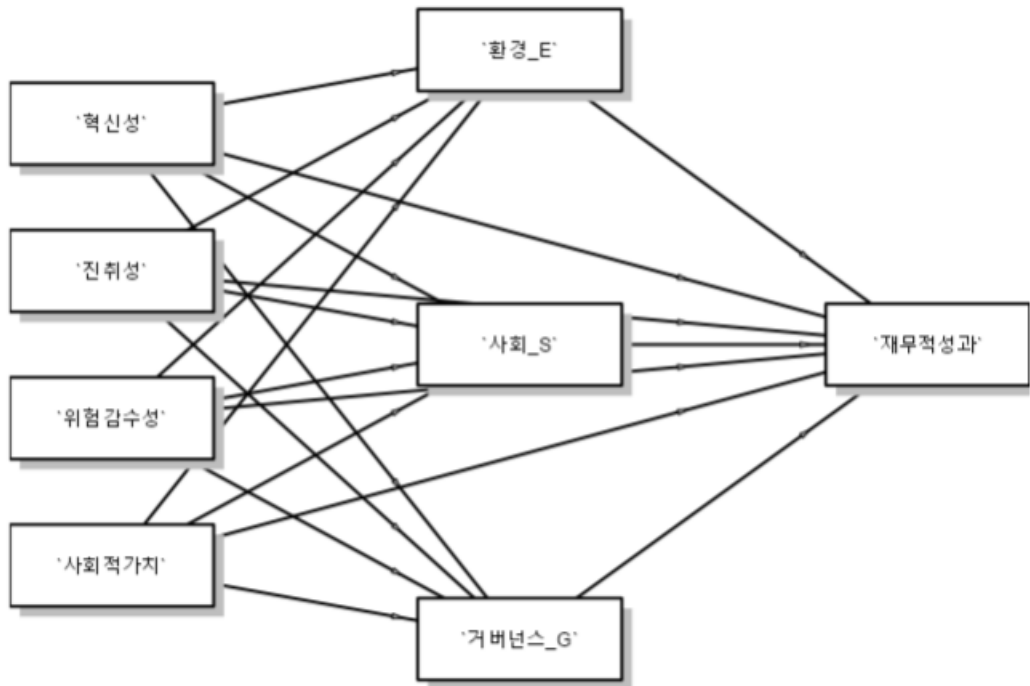
마지막 연구 가설인 〈가설8〉과 〈가설9〉에서는 ESG 경영의 세 차원인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세 차원의 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있어 어떠한 매개역할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매개 검증 과정을 통하여 부분매개(Partially-mediated) 혹은 완전매개(Fully-mediated)의 여부를 가려, ESG 경영이 실제 기업의 성과 창출에 있어 중요한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운데 어떤 ESG 경영을 집중 도입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ESG 경영 가운데 환경(E)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즉 ESG 경영 환경(E)을 도입했을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영성과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제조업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조업 기업의 경우 어떠한 ESG 경영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당 매개검증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ESG 경영이 가운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여 ESG 경영 도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을지, 본 연구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ion model)분석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속변수에는 재무적 성과를 그리고 매개변수에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세 가지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독립변인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 요인도 모두 동시에 투입하였다. 이에 <연구가설 8>과 <연구가설9>가 각각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GLM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하였다.



[그림 4-12] <가설8> 다중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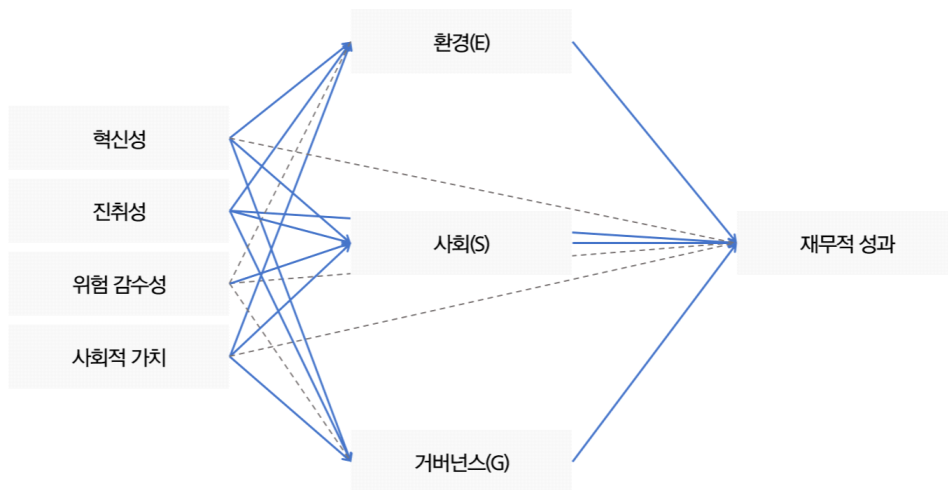
<연구가설8>의 결과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매개효과는 혁신성→환경→재무적 성과($Z=2.1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혁신성→거버넌스→재무적 성과($Z=2.31$, $P<.05$)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혁신성은 재무적 성과에는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Z=.98$, $P=.33$), 결과적으로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환경과 거버넌스는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매개효과는 진취성→환경→재무적 성과($Z=2.2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진취성→거버넌스→재무적 성과($Z=1.95$, $P<.05$) 또한 유의하였다. 하지만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Z=3.78$, $P<.001$), 환경과 거버넌스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위험감수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는 매개효과 검증 결과 유의한 결과가 하나도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험감수성과 재무적 성과에 있어 ESG는 매개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가치→환경→재무적 성과($Z=3.37$, $P<.001$) 그리고 사회적 가치→거버넌스→재무적 성과($Z=1.93$, $P<.05$)가 유의하게 나왔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Z=1.31$, $P=.19$)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첫째,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환경, 거버넌스는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환경, 거버넌스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녔다. 하지만 위험감수성과 재무적 성과 간의 ESG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의 경우 환경과 거버넌스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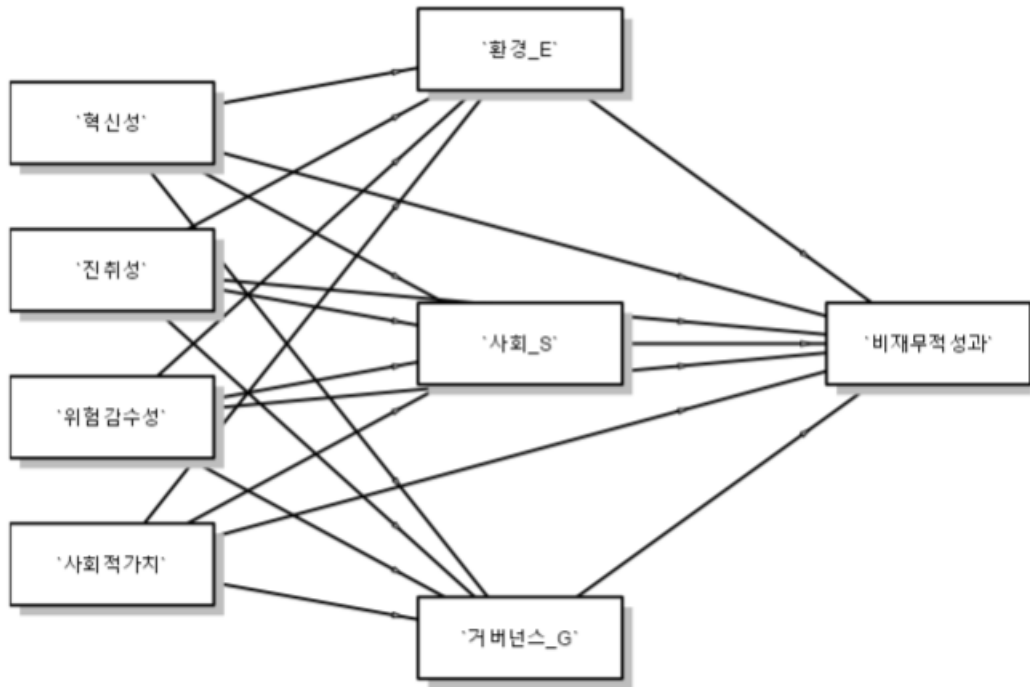


[그림 4-13] 〈가설8〉 다중매개모형 결과 경로

[표 4-19]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 ESG 다중매개 검증

Effect	B	SE	95% C.I.		β	Z	p
			Low	Upp			
Indirect effect							
혁신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2	.01	.01	.05	.03	2.10	*
혁신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2	.02	-.01	.07	.03	1.06	.29
혁신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7	.03	.01	.13	.09	2.31	*
진취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3	.01	.01	.05	.03	2.21	*
진취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2	.02	-.01	.08	.03	1.06	.29
진취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5	.03	.01	.11	.05	1.95	*
위험감수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0	.01	-.01	.02	.01	.65	.52
위험감수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1	.01	.00	.04	.01	1.05	.29
위험감수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0	.01	.00	.02	.00	.47	.64
사회적 가치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재무적 성과	.11	.03	.05	.18	.11	3.37	***
사회적 가치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1	.01	-.01	.04	.01	1.00	.32
사회적 가치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2	.01	.00	.05	.02	1.93	*
Component							
혁신성 $\Rightarrow$ 환경	.12	.04	.04	.18	.16	3.23	***
환경 $\Rightarrow$ 재무적 성과	.21	.06	.10	.33	.20	3.55	***
혁신성 $\Rightarrow$ 사회	.30	.05	.21	.40	.36	6.50	***
사회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7	.07	-.04	.22	.08	1.10	.27
혁신성 $\Rightarrow$ 거버넌스	.48	.05	.37	.58	.53	8.92	***
거버넌스 $\Rightarrow$ 재무적 성과	.15	.07	.02	.29	.17	2.18	*
진취성 $\Rightarrow$ 환경	.12	.04	.03	.21	.14	2.82	**
진취성 $\Rightarrow$ 사회	.33	.05	.22	.43	.32	6.09	***
진취성 $\Rightarrow$ 거버넌스	.35	.06	.23	.46	.31	5.94	***
위험감수성 $\Rightarrow$ 환경	.02	.03	-.03	.08	.03	.70	.49
위험감수성 $\Rightarrow$ 사회	.14	.03	.07	.20	.17	4.28	***
위험감수성 $\Rightarrow$ 거버넌스	.02	.03	-.04	.09	.02	.62	.53
사회적 가치 $\Rightarrow$ 환경	.52	.05	.43	.61	.53	10.87	***
사회적 가치 $\Rightarrow$ 사회	.16	.04	.08	.24	.14	3.81	***
사회적 가치 $\Rightarrow$ 거버넌스	.15	.04	.07	.24	.12	3.63	***
Direct							
혁신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5	.05	-.05	.17	.07	.98	.33
진취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25	.06	.12	.37	.26	3.78	***
위험감수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4	.03	-.03	.10	.05	1.11	.27
사회적 가치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7	.05	-.03	.17	.06	1.31	.19
Total							
혁신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17	.04	.09	.25	.22	4.43	***
진취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35	.05	.25	.44	.37	7.45	***
위험감수성 $\Rightarrow$ 재무적 성과	.05	.03	-.01	.12	.07	1.62	.11
사회적 가치 $\Rightarrow$ 재무적 성과	.21	.04	.13	.29	.20	4.92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14] <가설9> 다중매개모형

<연구가설9>의 결과 혁신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는 혁신성→사회→비재무적 성과($Z=2.7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혁신성→거버넌스→비재무적 성과 또한 유의하였다. 하지만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Z=2.20$, $P<.05$) 결과적으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ed effect)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매개효과는 진취성→사회→비재무적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진취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진취성→거버넌스→비재무적 성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매개효과 검증 결과 위험감수성→사회→비재무적 성과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위험감수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므로, 역시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으로 사회적 가치→사회→비재무적 성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가치→거버넌스→비재무적 성과도 유의하였으나, 사회적 가치가 비재무적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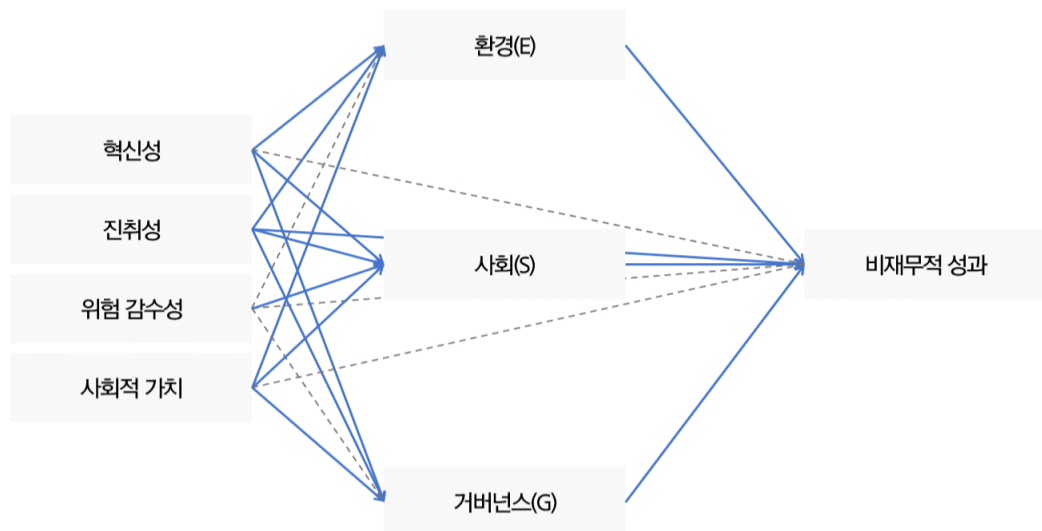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첫째, 혁신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사회, 거버넌스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ESG 사회, 거버넌스도 부분매개효과를 지녔다. 또한 위험감수성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ESG 사회도 부분매개효과를 지녔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 ESG 사회와 ESG 거버넌스 두 ESG 요인이 중요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 ESG 다중매개

Effect	B	SE	95% C.I.		β	Z	p
			Low	Upp			
Indirect effect							
혁신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0	.01	-.01	.02	.01	.64	.52
혁신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5	.02	.02	.08	.06	2.71	**
혁신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8	.03	.03	.14	.11	2.99	***
진취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0	.01	-.01	.02	.00	.62	.53
진취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5	.02	.02	.09	.05	2.77	**
진취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6	.02	.02	.11	.06	2.50	**
위험감수성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0	.00	.00	.01	.00	.31	.75
위험감수성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2	.01	.01	.04	.03	2.37	*
위험감수성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0	.01	-.01	.02	.00	.58	.56
사회적 가치 $\Rightarrow$ 환경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2	.03	-.03	.08	.02	.70	.48
사회적 가치 $\Rightarrow$ 사회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2	.01	.01	.05	.02	2.31	*
사회적 가치 $\Rightarrow$ 거버넌스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3	.01	.01	.05	.03	2.24	*
Component							
혁신성 $\Rightarrow$ 환경	.12	.04	.05	.19	.16	3.25	***
환경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04	.05	-.05	.14	.03	.70	.48
혁신성 $\Rightarrow$ 사회	.30	.05	.22	.39	.36	6.43	***
사회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15	.05	.07	.26	.17	3.13	***
혁신성 $\Rightarrow$ 거버넌스	.48	.05	.38	.59	.53	9.00	***
거버넌스 $\Rightarrow$ 비재무적 성과	.17	.06	.06	.28	.21	3.01	***
진취성 $\Rightarrow$ 환경	.12	.04	.04	.21	.14	2.81	**

진취성 ⇒ 사회	.33	.06	.21	.43	.32	5.81	***
진취성 ⇒ 거버넌스	.35	.06	.23	.46	.31	5.86	***
위험감수성 ⇒ 환경	.02	.03	-.05	.08	.03	.69	.49
위험감수성 ⇒ 사회	.14	.03	.07	.19	.17	4.35	***
위험감수성 ⇒ 거버넌스	.02	.03	-.04	.09	.02	.63	.53
사회적 가치 ⇒ 환경	.52	.05	.43	.61	.53	11.39	***
사회적 가치 ⇒ 사회	.16	.04	.07	.24	.14	3.79	***
사회적 가치 ⇒ 거버넌스	.15	.04	.07	.24	.12	3.66	***
<i>Direct effect</i>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12	.05	.01	.22	.16	2.20	*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21	.05	.12	.32	.23	4.13	***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08	.03	.03	.14	.11	3.06	***
사회적 가치 ⇒ 비재무적 성과	.08	.04	.00	.18	.08	1.80	.07
<i>Total effect</i>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25	.03	.18	.32	.33	7.43	***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33	.04	.25	.41	.35	8.04	***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11	.03	.05	.17	.15	3.83	***
사회적 가치 ⇒ 비재무적 성과	.15	.04	.08	.22	.15	3.99	***

*p<.05, **p<.01, ***p<.001



[그림 4-15] 〈가설9〉 다중매개모형 결과 경로

[표 4-2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Hypothesis)		채택여부
H1.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환경(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1-1	혁신성 → ESG 경영 환경(E)	채택
H1-2	진취성 → ESG 경영 환경(E)	기각
H1-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환경(E)	기각
H1-4	사회적 가치 → ESG 경영 환경(E)	채택
H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사회(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혁신성 → ESG 경영 사회(S)	채택
H2-2	진취성 → ESG 경영 사회(S)	채택
H2-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사회(S)	채택
H2-4	사회적 가치 → ESG 경영 사회(S)	채택
H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거버넌스(G)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3-1	혁신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채택
H3-2	진취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채택
H3-3	위험감수성 → ESG 경영 거버넌스(G)	기각
H3-4	사회적 가치 → ESG 경영 거버넌스(G)	채택
H4.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4-1	혁신성 → 재무적 성과	기각
H4-2	진취성 → 재무적 성과	채택
H4-3	위험감수성 → 재무적 성과	기각
H4-4	사회적 가치 → 재무적 성과	기각
H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5-1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5-2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5-3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5-4	사회적 가치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6.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6-1	ESG 경영 환경(E) → 재무적 성과	채택
H6-2	ESG 경영 사회(S) → 재무적 성과	채택
H6-3	ESG 경영 거버넌스(G) → 재무적 성과	기각
H7.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7-1	ESG 경영 환경(E)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7-2	ESG 경영 사회(S)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7-3	ESG 경영 거버넌스(G) → 비재무적 성과	채택
H8.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부분채택
H8-1	혁신성 → ESG환경 → 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H8-2	혁신성 → ESG사회 → 재무적 성과	기각

H8-3	혁신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H8-4	진취성 → ESG환경 → 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8-5	진취성 → ESG사회 → 재무적 성과	기각
H8-6	진취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8-7	위험감수성 → ESG환경 → 재무적 성과	기각
H8-8	위험감수성 → ESG사회 → 재무적 성과	기각
H8-9	위험감수성 → ESG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	기각
H8-10	사회적 가치 → ESG환경 → 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H8-11	사회적 가치 → ESG사회 → 재무적 성과	기각
H8-12	사회적 가치 → ESG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H9.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 ESG 경영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부분채택
H9-1	혁신성 → ESG환경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9-2	혁신성 → ESG사회 → 비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9-3	혁신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9-4	진취성 → ESG환경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9-5	진취성 → ESG사회 → 비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9-6	진취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9-7	위험감수성 → ESG환경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9-8	위험감수성 → ESG사회 → 비재무적 성과	채택 (부분매개)
H9-9	위험감수성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9-10	사회적 가치 → ESG환경 → 비재무적 성과	기각
H9-11	사회적 가치 → ESG사회 → 비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H9-12	사회적 가치 → ESG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채택 (완전매개)

4.3.2.5 다중 집단 분석 결과

앞서 검증한 연구 가설과는 별도로, 본 연구의 총 표본인 N=377 가운데 임원진 집단(N=221)과 부장 이하의 의사결정권자인 직원(N=156) 집단으로 둘로 분류하여, 집단 간의 결과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 집단 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두 집단의 다중 집단 분석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단의 [표4-22]를 제시한다.

[가설1]부터 [가설3]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임원급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원급의 직위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과의 관계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원급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정도에 따라 ESG 경영을 도입함에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4]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임원과 직원 모두 진취성만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임원 집단과 직원 집단 간의 가설 채택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재무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임원 집단의 경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직원 집단에 비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가설6]는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와 관계에 관한 가설로, 임원 집단의 경우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환경과 거버넌스 두 요인의 유의성으로 검증되었지만, 직원의 경우 환경 요인 하나만이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해당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임원 집단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ESG 경영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7]에서 ESG 경영과 비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임원 집단의 경우 [가설7-2], [가설7-3]이 채택되었으나, 직원의 경우

모든 가설이 전부 기각되었다.

해당 결과는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임원 집단은 ESG 경영을 도입하였을 때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입증되었지만, 반면에 직원 집단의 경우에는 ESG 경영이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ESG 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은 임원 집단이 직원 집단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의사결정권자라도 임원급과 낮은 직급의 의사결정권자 간의 확연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가로서, 경영자로서 사회적 변화와 경영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임원은 이미 경영자와 동일 수준의 의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4-22] 다중 집단 분석 영향 차이 결과 요약

경로	임원 집단(N=221)				직원 집단(N=156)			
	β	C.R.	p	채택	β	C.R.	p	채택
H1.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환경(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혁신성 → 환경(E)	.118	2.566	*	채택	.138	2.391	*	채택
2 진취성 → 환경(E)	.127	2.240	*	채택	.052	.748	.455	기각
3 위험감수성 → 환경(E)	.013	.335	.738	기각	.024	.487	.626	기각
4 사회적 가치 → 환경(E)	.422	8.360	***	채택	.677	9.917	***	채택
H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사회(S)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혁신성 → 사회(S)	.213	4.650	***	채택	.440	7.844	***	채택
2 진취성 → 사회(S)	.383	6.780	***	채택	.245	3.610	***	채택
3 위험감수성 → 사회(S)	.193	5.065	***	채택	.022	.458	.647	기각
4 사회적 가치 → 사회(S)	.174	3.475	***	채택	.169	2.537	*	채택
H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 거버넌스(G)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혁신성 → 거버넌스(G)	.639	13.918	***	채택	.278	5.726	***	채택
2 진취성 → 거버넌스(G)	.179	3.158	**	채택	.549	9.347	***	채택
3 위험감수성 → 거버넌스(G)	.021	.550	.582	기각	.059	1.395	.163	기각
4 사회적 가치 → 거버넌스(G)	.089	1.773	.076	기각	.197	3.423	***	채택
H4.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혁신성 → 재무적 성과	-.054	-.870	.384	기각	.120	1.487	.137	기각
2 진취성 → 재무적 성과	.254	4.133	***	채택	.280	2.861	**	채택

3	위험감수성 → 재무적 성과	.027	.685	.494	기각	.056	1.013	.311	기각
4	사회적 가치 → 재무적 성과	.086	1.521	.128	기각	.048	.484	.628	기각
H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혁신성 → 비재무적 성과	.140	2.446	*	채택	.101	1.462	.144	기각
2	진취성 → 비재무적 성과	.162	2.867	**	채택	.282	3.368	***	채택
3	위험감수성 → 비재무적 성과	.068	1.914	*	채택	.104	2.215	*	채택
4	사회적 가치 → 비재무적 성과	.080	1.536	.124	기각	.046	.548	.584	기각
H6.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환경(E) → 재무적 성과	.124	1.927	*	채택	.238	2.718	**	채택
2	사회(S) → 재무적 성과	.020	.311	.755	기각	.109	1.206	.228	기각
3	거버넌스(G) → 재무적 성과	.275	4.253	***	채택	.065	.625	.532	기각
H7. ESG 경영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환경(E) → 비재무적 성과	-.049	-.833	.405	기각	.134	1.787	.074	기각
2	사회(S) → 비재무적 성과	.178	2.999	**	채택	.138	1.788	.074	기각
3	거버넌스(G) → 비재무적 성과	.169	2.852	**	채택	.145	1.631	.103	기각

* $p<.05$, ** $p<.01$, *** $p<.001$

앞서 전체 가설 결과인 [표 4-2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요약과 위의 [표 4-22] 다중 집단분석결과와 차이를 비교하면, 직원의 경우 ESG 경영의 어떤 차원도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임원의 경우는 ESG 환경만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이 없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직원의 경우 ESG 사회와 거버넌스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이 없다는 인식을 한다.

이를 통해 아직은 일반제조업 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 초기로 대기업에 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지가 낮다고 본다.

특이점은 두 집단 모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가치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공통으로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ESG 경영의 매개효과 결과를 보면 사회적 가치는 ESG 환경과 거버넌스를 통해 재무적 성과에 완전매개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가치는 ESG 사회와 거버넌스를 통해 비재무적 성과에 완전매개 되어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통해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ESG 경영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ESG 경영 실행을 매개로 하는 경영전략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면, 제조업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 향상을 예상할 수 있겠다.

V.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나 경영성과 영향 분석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더라도 소수의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관한 연구만 존재하며, 일반제조업 기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든 기업이 혁신을 외치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업과 실무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기인한 의사결정으로 ESG 경영이 도입되어 사회적인 경영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021년 SK 하이닉스의 경우 “사회적 가치 2030” 목표를 CEO인 최태원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와 ESG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성수, 한국경제신문, 2021).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기존의 기업가 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성향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추가한 개념으로 정의 하였듯이, SK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란, 곧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의 세 차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으며, 둘째로 경영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에 관계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요인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ESG 경영과 경영성과 간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의 향후 중요성의 증대와 현재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경영 전략이라는 데 주목하여,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ESG 경영을 도입하거나 연관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인 재무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인 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를 탐색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ESG 환경과의 관계에는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두 기업가 정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ESG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 모든 요인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ESG 거버넌스는 혁신성, 진취성, 사회적 가치 세 가지 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의 세 차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나 ESG 사회(S)에 있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선행 변수로서의 중요한 예측 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검증 결과 재무적 성과에는 ‘진취성’ 하나의 요인만이 정(+)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재무적 성과에 있어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지 요인과의 유의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각과 관계있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장기 자원인 비재무적 성과에는 사회적 가치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재무적 성과 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ESG 경영과 제조업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는 어떠한 영향인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은 환경(E) 정도가 유의하게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ESG 환경(E)의 도입이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충섭, 정미자, 2013; Dalal & Thaker, 2019)와 비교 하면, 본 연구 결과의 차별점은 ESG 사회(S)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재무적 성과에는 환경과 사회 요인이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반면 비재무적 성과에는 환경을 제외한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이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 ESG 경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가설8〉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①혁신성 → ESG 환경 → 재무적 성과와, ②혁신성 → ESG 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해당 결과는 제조업 기업가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ESG 환경과 ESG 거버넌스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재무적 성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SG 각 변인의 매개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③진취성 → ESG 환경 → 재무적 성과와, ④진취성 → ESG 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가 부분매개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⑤사회적 가치 → ESG 환경 → 재무적 성과와, ⑥사회적 가치 → ESG 거버넌스 → 재무적 성과는 완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제조업 기업가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SG 환경과 ESG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매출증가율, 이익증가율, 시장점유율 등 유의한 경영성과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9〉의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비재무적 성과 간에 있어 ①혁신성 → ESG 사회 → 비재무적 성과가 부분매개효과를, ②혁신성 → ESG 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가 부분매개효과를, ③진취성 → ESG 사회 → 비재무적 성과가 부분매개효과를, ④진취성 → ESG 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가

부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⑤위험감수성 → ESG 사회→ 비재무적 성과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가치 → ESG 사회 → 비재무적 성과가 완전매개효과를, 사회적 가치 → ESG 거버넌스 → 비재무적 성과 또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 또한 ESG 사회와 거버넌스의 도입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조업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편익 향상, 업체의 인지도 상승, 종업원의 만족도 상승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높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ESG 사회, 거버넌스의 도입을 해야 한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 또한 물론 의미 있는 대목이지만, 무엇보다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전매개효과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4가지 요인들의 정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를 성공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ESG 요인들을 실제 경영환경에 도입하여 적용시켜 나가면, ESG 경영이 경영성과 창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가운데 ‘사회적 가치’는 ESG 경영의 환경, 거버넌스가 모두 재무적 성과를 상승시키는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가치’는 ESG 경영의 사회, 거버넌스가 모두 비재무적 성과를 상승시키는데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제조업 기업 경영자일수록, 이를 의사결정에 실제 반영하고 ESG 경영의 세부 차원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실제 비즈니스에 이식해 적용하려는 시도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네 가지 요인과 ESG 경영의 세 가지 차원의 어떠한 조합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 및 조직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ESG 경영의 매개효과를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서 적용하고 실행해 나가 고자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5.2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주요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주지하고 이에 따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대책을 강구중인 상황에, 실증연구가 없어 경영 전략 수립에 참고 할 만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점에서, 본 연구는 ESG 경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여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운영관리 실무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속성은 ESG 경영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매우 많으며, 진취적이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질이 높은 의사결정자의 경우 ESG 경영을 자신의 기업에 받아들이고 이식하는데 큰 거부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탐색적으로 밝혀냈다.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에 국한한 연구만이 존재하고 그간 연구 되지 않았던, 일반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에 관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봄에 따라 기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 연구의 저변을 확장시키고 상호 간의 개념을 접목시키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있어 학술적 의의가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아직 소수의 연구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나, 기존 기업가 정신의 이념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ESG 경영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친 커뮤니티적, 사회와의 공존 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윤 또한 안정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를 향후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따른 의사결정권자들의 ESG 경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ESG 경영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등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의 연구 결과는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본질적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인 주주들의 성과를 높이고 사회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윤 창출의 역할인 경영성과 또한 동시에 상승시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해있다.

비단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였던 제조업 기업의 의사결정자 뿐 아니라,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과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기존의 기업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큰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주주들의 공정한 이윤 분배와 기업 경영 성과에 관한 주기적이고 성의 있는 보고, 지역사회와의 공생, 아울러 범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환경으로부터 태어나고 환경으로 환원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섭리에 따라,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면 분명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5.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제언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해당 한계점은 추후 후속 진행 될 연구에 반영되어 보완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의 중분류, 소분류는 매우 다양함에도, 제조업을 한 데 묶어 일반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어, 표본의 특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을 해당 분야별로 표본을 수집하여 상호 간 연구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비교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된 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설문에 의한 심증이 아닌 경영성과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정량적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추후 실제 자료로 정량적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물론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선정하고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은 여러 공통점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주요 차원인 사회적 가치에 관한 설문문항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서 다루는 사회적 가치 13항목의 가치를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성도 있겠다.

설문조사의 한정된 항목 선택으로만은 알 수 없는 심층적 자료가 추후 보강되고 연구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제조업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이끌어 낼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과 밀착된 의사결정권자들의 애로사항과 같은 문제점 등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경란. (2020).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이슈 (코로나 19) 가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경영교육연구, 35(5), 349-372.
- 강해언, & 박종철. (2022). 기업의 환경적 책임활동 노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40, 7-14.
- 김계수. (2014). 서비스 품질 측정과 경영성과에 대한 PLS 구조방정식모델분석: KNPS 의 모형개발과 적용. 고객만족경영연구, 16(1), 23-41.
- 김다정. (2021). 금융기관의 ESG 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수, & 유연우. (2020). 해외역직구에 있어 쇼핑몰의 마케팅 역량이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6), 19-28.
- 김민규, 김주환,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범석, & 민재형. (2016). 기업의 ESG 노력과 재무성과의 선후행 관계: 탐색적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7(4), 513-538.
- 김선후, & 임옥빈. (2019). 컨설팅서비스품질이 BSC 관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88, 21-50.
- 김양민, & 박지현. (2021).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재무 성과: 실증연구 고찰과 향후 발전 방향. 전략경영연구, 24(2), 75-114.
- 김윤경. (2020). 기업 비재무정보 (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규제연구, 29(1), 35-59.
- 김은주.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4), 568-578.

- 김형주, & 전인오. (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5), 55-66.
- 나영, 김명서, & 장지인. (2013).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하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에 따른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42(5), 1403-1433.
- 민재형, & 김범석. (2019). 기업의 ESG 노력은 지속가능경영의 당위적 명제인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비재무적 책임 향상 노력의 차별적 효과. 경영과학, 36(1), 17-35.
- 박선주, & 유연우. (2020).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리뷰, 14(1), 58-98.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배병렬. (2015). 『SPSS/Amos, LISREL/SmartPLS 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배병렬. (2021). 『Amos 27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383.
- 배성수, “`사회적 가치 극대화`..SK하이닉스 ,`SV2030` 로드맵 발표”, 한국경제신문, 2021.01.07.
- 백상미, & 최정미. (2021). ESG 평가등급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99, 147-169.
- 봉강호, 박재민, & 김재영. (2018).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기술혁신연구, 26(3), 98-128.
- 서용구, & 김태미. (2022). 쿠팡의 ESG 경영. 상품학연구, 40, 67-75.
- 설현수. (2019). 대학 강의평가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3(4), 53-63.
- 성태제, & 시기자. (2020). 『연구방법론』 3 판. 서울: 학지사.

- 송거영, 노재확, & 유연우. (2014). 기업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16(2), 113-129.
- 송영수. (2010).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기업 코칭교육 만족도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5(2), 1-22.
- 송지준. (2014). 『통계분석방법 SPSS/AMOS』. 파주 세기사, 21.
- 신건권. (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 신동주, 홍정완, & 유연우. (2015). 컨설턴트의 친사회적 서비스가 관계적 배태성, 관계신뢰, 관계만족, 장기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95-106.
- 심용보. (2015).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직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3), 25-46.
- 오상희, & 이승태. (2019).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산회계연구*, 17(2), 205-223.
- 오현석, 이상훈, 류정현, 박한림, & 최윤미. (2015). 사회적기업가정신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109-133.
- 우종필. (2014). 『구조방정식모델 오해와 편견』. 서울: 한나래출판사.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만족, 신뢰, 의존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3(4), 45-56.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윤동진. (2022). 기업가정신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청암 박태준과 한국 철강산업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경영연구*, 33(1), 91-120.
- 윤여로, 정진섭, & 윤영호. (2019). CEO 의 리더십과 사회 압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11(2), 32-70.
- 윤조현. (2022). ESG 등급이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우, & 신호균. (2020).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성과분석. 로고스경영연구, 18(2), 49-68.
- 이광상. (2017). 글로벌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ESG) 투자전략 확산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6(20), 22-23.
- 이선희, 신호진, & 이상윤. (2021). 국내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 전략경영연구, 24(2), 145-172.
- 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기업연구, 2(2), 5-28
- 이용훈, & 심성학. (2018). 자원기반관점의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성에 대한 실증 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85-98.
- 이정기, &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23(2), 65-92.
- 이충섭, & 정미자. (2013). 환경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과의 매개효과.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3(1), 101-121.
- 이충섭, & 정미자. (2013). 환경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과의 매개효과.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3(1), 101-121.
- 이학식. (201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24』.
- 임옥빈. (2019).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SG 점수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86, 119-144.
- 장성희, & 마운주. (2011). 기업가정신이 시장지향성 및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5), 2777-2802.
- 장성희. (2012). 창업가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연구, 27(3), 223-245.
- 장승욱, & 김용현. (2013). 기업의 ESG 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30(1), 131-152.
- 전웅수, 고세라, & 손성진.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특성이 사회적 책임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8(3), 85-104.

- 조금제.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 CSR 의 활성화 방안. 벤처 혁신연구, 1(1), 67-82.
- 조희진, & 장용석. (2016).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한국정책학회보, 25(4), 329-359.
- 채주석, & 김찬중. (201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6(1), 143-174.
- 최유경. (2019). 사회적가치 요소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환경법연구, 41(2), 1-26.
- 최조순. (2012).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준혁, 양동훈, & 배홍기. (2017). CSR 은 기업의 여유자원의 결과인가?-기업수명주기를 통한 분석. 회계정보연구, 35(3), 333-364.
- 최창호, & 유연우. (2011). 자산구성 및 자본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의 재무컨설팅 활용 중심. 생산성논집, 25(3), 401-425.
- 최창호, & 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한충근, & 유연우. (2016). 조직내부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원의 지식경영활동에 따른 매개효과 분석: 직종별 대기업 종사자 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8), 544-559.
- 허준. (2020).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기초)』. 서울: 한나래.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2. 국외문헌

- Abu-Saifan, S. (2012). Social entrepreneurship: definition and boundari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2), 22–27.
- Achim, M. V., & Borlea, S. N. (2015). Developing of ESG score to assess the non-financial performances in Romanian companie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2, 1209–1224.
- Alvord, S. H., Brown, L. D., & Letts, C. W. (2004).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trans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3), 260–282.
- Bacinello, E., Tontini, G., & Alberton, A. (2021). Influe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mplications on business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8(2), 776–785.
- Ben Brik, A., Rettab, B., & Mellahi, K. (2011). Market orient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9(3), 307–324.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 Carroll, A. B.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497–505.
- Certo, S. T., & Miller, T. (2008). Social entrepreneurship: Key issues and concepts. *Business Horizons*, 51(4), 267–271.
- Chandler, G. N., & Hanks, S. H. (1994).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77–89.

- Collier, D. A., Fitzpatrick, D., Brehm, C., Hearit, K., & Beach, A. (2020). Structuring first-year retention at a regional public institution: Validating and refining the structure of Bowman's SEM analysi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61(8), 917–942.
- Dalal, K. K., & Thaker, N. (2019). ESG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 panel study of Indian companies. *IUP Journal of Corporate Governance*, 18(1), 44–59.
- Dees, J. G. (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 Dess, G. G. and Lumpkin, G. T. (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9 No. 1. pp. 147–156.
- Dorflleitner, G., Halbritter, G., & Nguyen, M. (2015). Measuring the level and risk of corporate responsibility—An empirical comparison of different ESG rating approaches. *Journal of Asset Management*, 16(7), 450–466.
- Drost, E. A. (2011). Validity and reliability in social science research. *Education Research and Perspectives*, 38(1), 105–123.
- Evans, P. and Wurster, T. S. (2000). Blown To Bits: How the New Economics of Information Transforms Strateg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Friede, G., Busch, T., & Bassen, A. (2015).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5(4), 210–233.
- Galloway, L., Anderson, M., & Brown, W. (2006). Are engineers becoming more enterprising? A study of the potentia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inuing Engineering Education and Life Long Learning*, 16(5), 355–365.

- Germak, A. J., & Robinson, J. A. (2014). Exploring the motivation of nascent social entrepreneur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5(1), 5–21.
- Gomez–Rubio, V. (2017). ggplot2–elegant graphics for data analysi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77, 1–3.
- Guerrero, M., Rialp, J., & Urbano, D. (2008). The impact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1), 35–50.
- Hall, J. K., Daneke, G. A., & Lenox, M. J.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Past contribution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439–448.
- Halter, C. P. (2018). Exploring Statistical Analysis Using JASP. *Independently published*.
- Haugh, H. (2005). A research agenda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Journal*, 1(1), 1–12
- Helm, S. T., & Andersson, F. O. (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0(3), 259–27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ijzers, G. (2002). The transition to the sustainable enterpris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4), 349–359.
- Kenney, M. (1986). Schumpeteria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 in capitalism: A case study of the US biotechnology industry. *Research Policy*, 15(1), 21–31.
- Kline, R. B. (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Kline, R. B. (2012). Assumption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H.Hoyle(Ed.), *Handbook of structure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111–12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67.
- Korosec, R. L., & Berman, E. M. (2006). Municipal support for social entrepreneurshi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448–462.
- Kuratko, D. F. (2012).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 *Handbook on organisational entrepreneurship. Edward Elgar Publishing*.
- Landi, G., & Sciarelli, M. (2018). Towards a more ethical market: the impact of ESG rating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15(7), 11–27.
- Lasprogata, G. A., & Cotten, M. N. (2003). Contemplating enterprise: The business and legal challenge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m. Bus. LJ*, 41–67.
- Lee, S., Park, N. J., Bong, S. K., Jegal, J., Park, S. A., Kim, S. N., & Yang, M. H. (2018). Ameliorative effects of Juniperus rigida fruit on oxazolone–and 2, 4–dinitrochlorobenzene–induced atopic dermatitis in mic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14, 160–167.
- Li, Y., Guo, H., Liu, Y., and Li, M. (2007). Incentive Mechanism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vidence from China's Transitional Economy,"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5 No. 1. pp. 63–78.
- Light, P. C. (2006). Reshaping social entrepreneurship.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4(3), 47–51.
-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rsman, M., & Wagenmakers, E. J. (2017). Bayesian benefits with JASP.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5), 545–555.
- Martin, R. L., & Osberg, S.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 case for defini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pring, 29–39.
- McDonough, W., & Braungart, M. (2002). Design for the triple top line: new tools for sustainable commerce. *Corporate Environmental Strategy*, 9(3), 251–258.
- Menguc, B., Auh, S., & Ozanne, L. (2010). The interactiv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a proactive environmental strategy and its influence on a firm's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2), 279–298.
- Mohr, J., & Spekman, R. (1994).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success: partnership attribut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2), 135–152.
- Ouni, Z., Ben Mansour, J., & Arfaoui, S. (2020). Board/Executive gender divers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in Canada: The mediating rol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orientation. *Sustainability*, 12(20), 83–86.
- Peredo, A. M., & McLean, M.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56–65.
- Rossi, M., Festa, G., Chouaibi, S., Fait, M., & Papa, A. (2021). The effects of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intellectual capital voluntary disclosure. *Journal of Intellectual*

- Capital*. 22(7), 1–23.
- Russo, M. V., & Fouts, P. A. (1997).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3), 534–559.
- Sassen, R., Hinze, A. K., & Hardeck, I. (2016). Impact of ESG factors on firm risk in Europ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86(8), 867–904.
- Schumpeter, J. A. (1991).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 (2002). The economy as a whole: Seventh chapter of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y and Innovation*, 9(1/2), 93.
- Shi, D., & Maydeu-Olivares, A. (2020). The effect of estimation methods on SEM fit indic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80(3), 421–445.
- Simon-Moya, V., Revuelto-Taboada, L., & Guerrero, R. F. (2014). Institutional and economic drivers of entrepreneurship: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5), 715–721.
- Szabo, Z. K., & Herman, E. (2012). Innovative entrepreneurship for economic development in EU.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 268–275.
- Thalhuber, J. (1998). The definition of social entrepreneur. *National Centre for Social Entrepreneurs*, 1–3.
- Thompson, J. L. (2002). The world of the social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5(5), 412–431.
- Venkatraman, N., &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Wang, K., Xu, Y., Wang, C., Tan, M., & Chen, P. (2020). A corrected goodness-of-fit index (CGFI) for model evalua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7(5), 735–749.
- West, S. G., Aiken, L. S., & Krull, J. L. (1996). Experimental personality designs: Analyzing categorical by continuous variable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4(1), 1–48.
- Widyawati, L. (2021). Measurement concerns and agre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ratings. *Accounting & Finance*, 61, 1589–1623.
- Xie, J., Nozawa, W., Yagi, M., Fujii, H., & Managi, S. (2019). D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ctivities improve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8(2), 286–300.
- Zahra, S. A. (1993). Environment,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financial performance: A taxonomic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4), 319–340.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제조업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박사학위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 설문자료는 모두 전량 폐기됨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은 제조업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제조업 외감기업의 관련 임원 또는 매니저(담당)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현재 귀하가 소속된 기업의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귀하의 설문참여 및 응답 적합 여부를 판단해주시고 성실히 본 설문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혹은 귀하의 하시는 일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창업 및 컨설팅 경영 분야 학문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2021년 09월

- 연구자: 김대영 박사과정(polyolkim@naver.com)
- 지도교수: 김정렬 교수(jrkim@hansung.ac.kr)



번호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자원의 획득과 활용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종종 새로운 것(제품, 기술, 조직 등)을 만들어 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위계질서와 관행을 중시하고 파격을 배척한다.(Reverse question)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빈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를 질책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항상 신제품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서 모방전략(me-too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경쟁업체를 앞서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쟁업체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공존공생을 더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그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질책하지만 도전 뒤 실패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사업에서 비교적 확실한 것들만 추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종종 수익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투자 및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이 큰 사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유망사업에 진입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현재의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익적 가치와 기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맡은 직무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ESG환경 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재무적 성과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합니다.

번호	ESG 경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기업)은 친환경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기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기업)은 회사에 적합한 환경전략과 방침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기업)은 공정거래, 부패 방지,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기업)은 소비자와의 공정거래에 힘쓰며 소비자 안전 및 보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소통을 원활히 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기업)은 주주 권리의 보호와 합리적인 소유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기업)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기업)은 합리적인 수익률 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경영성과 (재무적 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우리 회사의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은 업계평균 이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지난 3년간 이익증가율은 업계평균 이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지난 3년간 시장점유율 신장률은 업계평균 이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회사의 지난 3년간 수익률(ROI)은 업계평균 이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경영성과 (비재무적 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우리 업체의 제품/서비스 편익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우리 업체의 인지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우리업체의 종업원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응답자 여러분의 기본적인 특성인 개인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니, 개인정보 유출 및 신상정보 안전 문제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정보 역시 연구가 종료된 시점 전량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귀하의 학력수준은?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② 2-3년제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이상

5. 현재 귀하의 직책은?

① 대리이하 ② 과장-차장 ③ 부장 ④ 임원진

6. 귀하의 기업 업력은 어떻습니까?

(예: ① 5년 미만 ② 5-7년 미만 ③ 7-10년 미만 등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년 수 기입 요망)

()년 미만

7. 귀사의 고정비율은 어떻습니까? (하단의 공란에 아라비아 숫자로 퍼센트 기입 요망.)

()% 초과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함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ESG–

Kim, Tae-Young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exploratory quantitative research dissertation aims mainly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relations between Three construct variables (ie., Social entrepreneurship, ESG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To find a useful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N=377). Participants are composed of Decision-makers in domestic manufacturing corporation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concentrating on find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ceptual construct variables based on the research hypothesis. Hence previously construct SEM Modeling, fundamental statistics were revealed. After all, using the AMOS 27 package constructed Measure

ment modeling analysis also scientifically demonstra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measurement scale. This research suggested a Structural model and demonstrated each research hypothesis. In particular, through JASP each construct relationship represented visualized image.

Collectively, the dissert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SG innovativeness and social opportunity recognition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ESG Environment factor. Interestingly all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factors had positive relations with ESG Social factors. Additionally, innovativeness and pro-activeness, social opportunity recognition are related to the Governance factor. The implication of these remarkable results shows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factor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SG.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two construct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partially.

Second,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ase of financial performance, pro-activeness had a positive relation. Yet interestingly, non-financial performance is related to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 tolerance. Remarkably, three factors had relations with non-financial performance. Even these results show that only had relations pro-activeness characteristics positive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But the importance of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index is considered an important business factor. The results request for decision-makers to concentrat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maintaining social entrepreneurship's positive relations factors.

Third,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relations between ESG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act most business and economy major researchers and practicing professionals are interested in these issu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vironment factor and Society factor had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s. Then, the Society factor an

d Governance factor are related to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se results, decision-maker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y try to effort to increase own their enterprises performance.

At the end of this study,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d the important role of ESG factors. Hence, a GLM-Mediation effects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s as follow.

First of all, ESG Environment and Society showed a fully mediating effect between Innovativeness and financial performance. Next, ESG Environment and Governa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proactiveness and financial environment. Lastly, ESG Environment and ESG Governance also showed a fully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value and financial performance.

Next, as a result of ESG mediation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ESG Environment and Innovativeness showed partial mediation between innovation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ESG Governance showed a fully mediating effect between risk seeking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between social valu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ESG society and ESG governance two variables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the mediating role of ESG management, which is generally very remarkable and encouraging,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This dissertation study finds out som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ESG, and business performances. The empirical scientific results expanded academic fields. Furthermore, influential factors will be applied in the practical field. As a viewpoint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included.

【Key-words】 Entrepreneurship, Social Value Orient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Sustainability Management, ESG Management,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